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1008-1009 1982년 12월17일(금) & 1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December 17 & 1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DEC 1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김대중씨 석방

16일 서울대병원 이송 수일내 가족과 미국행

(서울16일=연합)국가교란죄로 20년형을 복역중이던 김대중(57)씨가 16일 석방되어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수일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문화공보부는 16일 공식성명을 통해 김씨와 그 가족이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특혜를 베풀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후보로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김씨는 신경통과 원인이 분명치않은 종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정치소식통은 김대중씨와 그 가족이 빠르면 내주초 미국에 갈 것이며 이미 김씨를 미국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김씨가 형집행정지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80년5월 광주사건을 주동,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81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었다가 즉각 대통령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뒤 82년3월 다시 20년으로 감형됐었다.

정부대변인은 김씨에 대한 조치가 전대통령 및 정부의 국민화합을 위한 결의를 향한 인도적인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발표문 전문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계엄령을 위반, 1981년1월23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김대중을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 지병을 치료케 조처했다.

김대중은 12월16일 상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가료중이며, 정부는 앞으로 김대중과 그의 가족이 원하면 미국에서의 신병치료를 포함, 가능한한 관대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처는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려는 제5공화국의 의지와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각별한 인도주의적 배려에서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김대중을 서울대학병원 이송조처와 함께 김대중 내란음모 연루자및 광주사태 관련자등 구시대 혼란기의 유사한 법위반자들에게 새 시대 사회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73년12월27일 새벽, 김대중씨는 납치됐다가 석방, 지팡이를 짚으며 동교동 자택에 들어섰다.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 일본언론 대서특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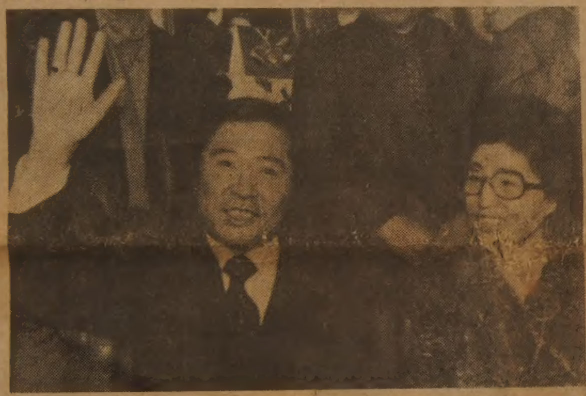
(동경=송효빈특파원)요미우리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은 김대중씨의 서울대병원 이송조처를 16일자 석간 1면톱으로 크게 보도하고, 각 TV방송도 이를 특별뉴스로 다루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대중씨 실질석방"이라는 표제하에 서울발 뉴스로 보도, 김대중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조치후 미국으로 곧 떠날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한국정부가 이번조치를 취한것은 정국안정에 자신감이 간것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대외적 영향등을 고려, 유연성을 보인것이다"고 논평했다.

일본정부는 김대중씨 병원이송조처가 한·일관계에 좋은 영향이 미칠것이다"고 논평했다. 나까소네수상은 "한국내정에 관한 발언은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후 "인도적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외무성관리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나 한국정부의 인도적조치는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고 논평했다.

미국무성 논평

미 국무성은 김대중씨 석방에 대해 성명을 발표, "김씨 석방은 한국정부가 민주화를 향한 정당한 조치로 본다"고 말하고 "만약 김씨가족이 미국 방문을 희망한다면 미국정부로서는 지꺼이 그를 받아 들이겠다"고 논평했다.



▲ 1979년12월27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을 때 동교동 자택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대중씨와 이희호 부인.

◀ 1979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총재에 당선된 김영삼씨(왼쪽)가 김대중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국민단합 위한 조처" 각 정당 일제 환영성명

(서울-본사전화)김대중씨 서울대병원 이송조처에 대해 한국의 각정당은 성명서를 발표, 이를 환영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 김요태대변인: "제5공화국출범이전의 불행한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화합을 더욱 공고히한 전대통령의 영단으로 우리는 영도자의 신념인 정치안정과 정의로운 민주국가건설에 전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야당인 민한당 김잔배대변인: "김대중씨 석방조처를 온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지난날의 상처를 씻고 국민화합 분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 정책이다"

국민당 이성일 대변인: "김대중씨 석방조처를 환영한다. 국민화합 분위기를 이루려는 정부의 강력한 조처이다"

그밖에 신사당, 의정동우회등도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론토교민 반응

토론토민주건설협의회의 박찬웅씨는 16일 김씨의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조처 소식을 듣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한국의 민주회복을 위해 고무적 조처이다. 문익환·이문영 두 교수를 비롯한 그밖의 수백명 부욱인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여하간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한시빨리 한국에 민주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활동 풀어줘라" 한국의원들 건의안 제출

(서울 15일=연합)41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5백여 인사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군소정당인 국민당, 신사당및 의정동우회소속인 이들 의원들은 567명의 정치인들이 지난 2년간 충분한 반성을 가졌으므로 이들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촉구했다.

지난 80년11월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88년 6월까지 정치활동이 금지 조처됐다.

작년에 제1야당인 민한당이 국회에 제출한 이와 유사한 건의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다.

한국의 GNP 북한의 4.6배

(서울)한국의 1981년도 국민총생산액(GNP)은 622억달러로 북한의 136억달러보다 4.6배나 높다고 국토통일원이 13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1천607달러, 북한이 750달러이며, 1981년도 총수출액은 한국 213억달러, 북한 130억달러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란콤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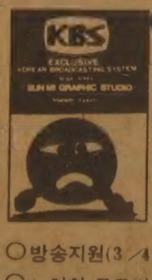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533-9387~8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822 The Queensway
(Queensway x Islington)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작은 비즈네스를 위해 크고 비싼 계산기가 필요없읍니다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작고 값이 싼 파나소닉 제품
⊙세금을 따로 찍을 필요없이 계산됨.
⊙간단하고 편리한 제품
안수일 252-7377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직수입 비데오 테프 1000개


● 선명한 색상의 화면 인기있는 프로그램
●방송용 3/4
●가정용 VHS ●BETA
○방송지원(3/4) — 벤쿠버 한인회, 에드몬턴 한인회
○노인회 무료지원 — 토론토 노인회 매주화요일 2시
보다 알찬 프로그램과 밝은 화면으로 교육, 종교 문화, 사극, 현대극, 영화, 문학, 가요, 희극, 비극을 준비했읍니다.
미도파 3 FLOOR
454 BLOOR ST.W.TORONTO B.531-6430 R363-6523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TTC 확장계획 발표

메트로 전역을 급행노선화

TTC와 고·트레인및 새로운 교통라인을 총동원한 메트로의 확대교통망이 오는 2012년까지는 실현될 것 같다.

15일 TTC는 매스터·플랜으로 1991년까지 연평균 5억의 승객을 실어나르며 수천개의 건설직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TTC의 매스터·플랜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년간의 논의가 예상되며, 대강의 아웃·라인은 적어도 90년대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TTC계획국장 쥬리·필씨는 현 단계로는 정확한 경비가 계산되지 않았지만 건설비의 75%가 온타리오주정부에 의해 커버될 것으로 예상되며, 30년뒤의 교통, 경제, 사회적동향을 예측해내는 데만도 2년이란 시간과 2만1천달러의 경비가 들었다고 말했다.

필씨는 새 계획의 중심점은 메트로전역 어디에서건 티켓한장으로 인근도시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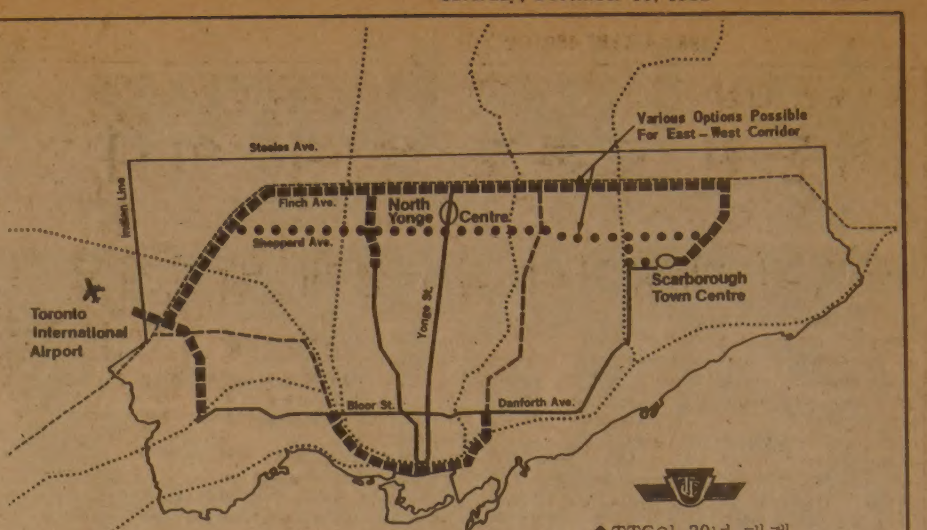
▲하이웨이 401북쪽에 TTC와 고·트랜짓을 혼합한 동서구간을 신설, 블루어~댄포스지하철이 끝나는 지점과 연결한다.

▲4억달러를 들여 페입(Pape)이나 돈랜즈(Donlands)역에서 유니온(Union)을 연결, 영 지하철로 몰리는 승객을 분산시킨다. 이 노선은 후에 북서쪽으로 블루어까지 연결된다.

▲키플링(Kipling)역에서 토론토 국제공항까지 노선을 연결시킨다.

▲TTC와 고·트랜짓등 인근교통당국의 통합체로 유협식의 교통조합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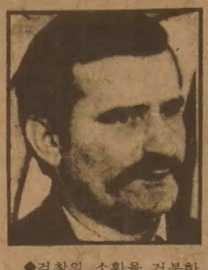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TTC가 내놓은 메트로·토론토의 30년뒤의 교통망. 지하철과 고·트레인및 새로운 교통망까지 합쳐 메트로 전역을 연결시킨다.

바웬싸 검찰 소환 거부

16일 석방후 첫 공개연설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 폴랜드의 영웅 렉·바웬싸.

(바르샤바)폴랜드 전국자유노조 솔리대리티의 지도자 렉·바웬싸(39)는 15일 검찰청의 소환을 거부, 16일 예정된 석방후 첫 공개연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2명이 숨진 그댄스크 노동자들의 반정부궐기 12주년인 16일을 하루 앞둔 15일의 검찰호출은 바웬싸의 공개연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이미 공개된 바웬싸의 연설전문에서 그는 공산주의 체제안에서 공개적, 다각적인 반체제운동을 펼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14일 11개월의 감금생활에서 석방된 바웬싸는 검찰의 호출에 불응하고 서한을 보내 법적인 절차상 소환은 무효였으며 소환되는 이유와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소환장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 16일 그댄스크의 레닌·그라드 조선소에서 있을 공개연설을 그대로 실행할 렉·바웬싸는 또 지난 14일에 주 재정사무당국으로부터 솔리대리티 그댄스크지부의 재무부정에 관한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했었다.

바웬싸는 두장의 소환장이 모두 발부자의 이름과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복경찰들이 15일밤 바웬싸의 아파트건물 주위를 포위했으며, 측근 소식통들은 바웬싸가 소환에 관해 변호사들과 협의하며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또 석방이후 정치문제에 잠잠하던 바웬싸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지지자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쟁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환조처들은 바웬싸의 석방이후 정부가 가한 첫번째 조처이다.

바웬싸의 소환거부이유를 밝힌 편지는 서방기자들에 전달됐었다.

한 미국 TV방송은 지난달 폴랜드정부가 바웬싸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댄스크 노조지부장인 바웬싸가 재정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으며,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캐톨릭교회 지도자들에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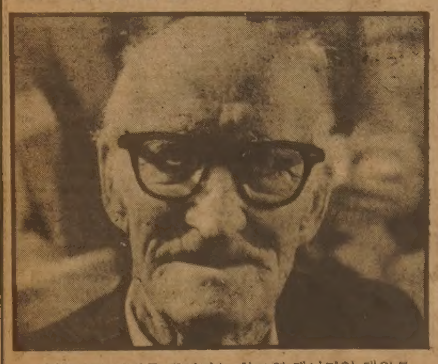
최고령 캐나다인

115살의 트럼블씨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나이를 먹은 올해 115살의 데이브·트럼블씨. 그는 최근에도 새벽 6시기상하며 109살이 되던 해, 새 직업 즉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 지금까지 2권의 저서를 내놓았다.

수년전 4번째부인과 사별한 이후 아직도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며, 75살때 본 쌍둥이 막내자식까지 합쳐 자녀수는 모두 19명. 100살때 담배를 끊었다.

1867년 연방법이 공포되던 해 태어난 그는 현재 온타리오주 벨르빌부근 캐닝톤의 양로원에서 살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는 강력한 보수당 지지자로 76년 피에르·트루도수상과 만났을때 "일생의 유일한 정치적 판단상의 실수는 1800년말에 자유당 지지표를 던진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100살때 담배를 끊었다는 최고령 캐나다인 데이브·트럼블씨

"美國의 景氣가 회복되고 있다"

白堊館 발표

연방준비은행(FRB)은 13일 하오 은행의 재할인율(Discount Rate)을 현행 9%에서 8.5%로 인하했다.

인하된 재할인율은 14일부터 실시된다.

연방준비은행의 이번 재할인율 인하는 지난 7월이후 일곱번째 취해진 조치이며 지난 78년 11월1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은 시중 일반금융기관에 융자해줄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이것이 하락하면 일반 시중금리도 대체로 떨어진다.

이와때를 같이해 백악관경제자문위는 미국의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낮은 금리가 경기회복의 첩경이라고 주장해왔었다.

한편 뉴욕의 증권시장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인하소식이 전해지자 특히 장기채권의 가격이 폭등 액면가 1천달러짜리가 채권당 20달러 이상이 올랐다.

또 금융가에서도 이자율이 하락, 6개월짜리 재무성 보증저금(T Bill)의 이자율이 8.27%에서 7.93%로 내려갔다.

시인 구상 문학강연

계간<미주문학> 출판기념회

(LA지사)원로시인 구상씨 초청, 문학강연회및 계간 종합문예지 <미주문학> 창간호 출판기념회가 미주한국문인협회(회장 송상옥) 주최로 18일 하오5시 LA 갤러리스코프(웨스턴과 3가)에서 열린다.

시인 구상씨는 하와이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며, 연말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LA를 방문하게 되며, 연제는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초로 간행되는 종합문예지 「미주문학」 창간호에는 본국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토미, 미주에 체재중인 문인들을 포함, 50여명의 시·소설·동화·희곡·수필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참석자들에게는 「미주문학」을 증정하며, 회비는 10불.

15일 한인회 정기총회

한인회 정기총회가 새해 1월15일(토) 하오3시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개최된다.

총회의 안건으로는 업무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신·구 회장단 이취임, 83년도 업무계획보고, 이사선임위원 인준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 우체국 휴무기간 발표

메트로·토론토지역의 모든 우체국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날과 27일(월), 28일(화)에 휴무한다고 16일 중앙우체국이 밝혔다. 따라서 25일부터 28일까지 우편배달도 없다.

우체국은 29일(수) 업무를 재개했다가 새해 첫날인 1일(토)부터 1월3일(월)까지 휴무하며 1월4일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25일(토) 휴무
26일(일) 휴무
27일(월) 휴무
28일(화) 휴무
29일(수)
30일(목)
31일(금)
1일(토) 휴무
2일(일) 휴무
3일(월) 휴무

오스카賞이 꿈이예요

▲요염한 17세 브룩·쉴즈. 인기배우이자 뉴저지 하이스쿨학생이기도 한 쉴즈는 하이스를 졸업후 프린스톤입학을 희망하기도. 그러나 역시 생애최대의 희망은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것이라고.

性敎育 모두 말합시다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㉘

母乳먹이면 産後회복 빠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공중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어 이제는 거의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몇년 후에 올림픽을 맞을 채비를 하고있는 처지에서 무척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유방은 하나의 여성 성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유방의 크기 또는 모양에 큰 관심을 가져, 나는 적다느니, 크다느니 또는 양쪽이 달라 짝짝이라느니 하며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유방의 크기가 미인대회에서의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니 그럴만도 하다. 또 이때문에 자기 아이를 낳아 놓고도 유방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두려워 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엄마도 있어 기가 막힌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야- 누구에겐들 없으랴만 그 때문에 아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어린애는 모유를 먹어야 한다. 모유속에는 그 어린애가 필요로하는 모든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첫째분만을 한후의,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기에게 젖을 빨리는것은 중요한 뜻을 갖는다. 즉 회복이 빨라지는 것으로 이런현상은 실로 조물주에의한 조화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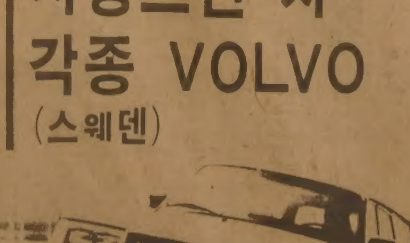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큰 쟁점이 있을 것인데, 어머니가 되려면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여성의 몸매가 문제가 된다는것은 또한 애기아빠에게 책임이 있다. 두사람의 애기를 낳아 기르드라 아내의 유방모양이 바뀌었다하여 실망을 한다면 아버지가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아니고 외부치레만을 위한다면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꾸며낼수있는것이다. 또 유방은 다른 몸매의 변화와 같이 사람이 늙으면 기왕에 달라지게 되어있고 아무도 이 늙는다는 현상을 막을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고한들 기한부일 뿐이다.

이렇게 어린애를 낳으면 부모의 희생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이 싫다면 「아이」라는 존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일부 서구문명에 도취되어 그들이하는 양상일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여성 외에는 모유로 기르고 있는 실정이나 이때에 모유를 먹이는 방법에는 지나치게 앞가슴을 헤쳐, 남들 앞에 온가슴을 다 드러내 보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모습은 무척 아름다운 것임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흔히 그림의 소재가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유방은 동시에 여성성기의 하나이므로 함부로 노출시킨다는것이 좋을 수는 없다.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왜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품·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 7664 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축 창립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하나님의 섭리속에서 세워지는 본 교회의 창립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12월19일 오후5시
장 소 : St. Giles Anglican Church
35 Kecala Road(☎ 755-5316)
연락처 : ☎ 752-9860, 752-9727

St. Giles Church / Forbes Rd. / Kennedy Rd. / Lawrence Ave. / Canadian T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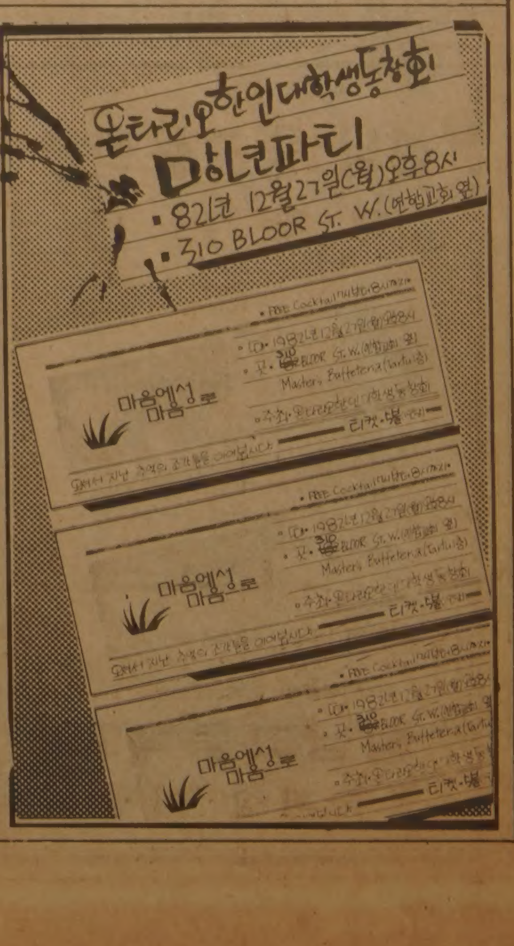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토론토소망교회
담임목사 서 인 구
창립위원 일동 배상

세네카 College 년말파티

장 소 : EMBERS 레스토랑
781 Warden Ave.
에그린튼 남쪽 sears 앞
일 시 : 1982년12월29일(수) 오후7시.
※정장을 요함. Cash Bar 이용
연락처 : 회 장 이병학 431-9283
부회장 김정수 368-1975

※경품 추첨함
(1등 $200이상등 푸짐한 선물)

한인세네카 동문회



〈스포츠 단상〉

최동원 토론토 올 수 있나?

경직된 행정처리 선수장래 망칠지도

최동원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줄다리기는 이제 한국프로야구단과 북미프로야구단의 대결로 양상이 바뀐 느낌이다.

15일 블루제이스측은 최동원이 병역문제로 캐나다에 못오더라도 자기들의 동의없이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어쩌면 한국관계당국의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이 한 유망한 야구선수의 장래를 망치고, 이제 갓 출발한 한국프로야구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킬 염려가 있다.

한국 체육부는 지난11일 국가대표 야구선수들에게 병역을 면제시켜 주면서 국내프로팀에서만 뛸 수 있고 해외에서는 안된다고 발표했다.

지난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기간중 만나본 몇몇 프로야구계 인사들은 "최동원이 캐나다에 가더라도 그곳 야구수준이 너무 높아 활약도 못하고 곧 쫓겨온다", "토론토측이 제시하는 돈도 적어 한국만큼도 못하다", "한국프로야구발전에 최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최동원의 해외진출에 반대의견을 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난 1년4개월간 최동원과 블루제이스의 스카웃 씨름을 지켜본 기자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북미프로야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견해는 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최의 활약상이 북미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의 눈에 띈 것은 이미 5년전 이태리 세계대회부터 였다. 그당시 스카우터들은 미국팀에 단1점을 내주면서 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재학중인 선수들에게는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 그의 성장을 지켜본 이들은 81년8월 캐나다 에드몬톤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최동원의 활약상을 보고 본격적인 스카웃 경쟁에 뛰어 들었다. 뉴욕 양키스, L.A.다저스등 유명팀이 스카웃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가장 적극적 교섭과 그당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토론토·블루제이스에게 1차 낙착됐었다.

작년 9월 서울로 달려가 최동원측과 1차계약에 성공한 블루제이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를 메이저리그 선수로 스카웃했다는 것과 4년간의 계약임을 이곳 뉴스메디아에 밝혔다.

이같은 뉴스가 터지자 토론토신문의 야구 베테란 기자들과 북미야구계 관계자들은 최가 "메이저리그 선수로 부족이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그후 최동원측에서 계약내용에 불만을 품자 블루제이스는 다시 81년12월경 왈리인사부장등을 내보내 설득전을 펼쳤다.

일단 최선수가 82년 시즌에 맞추어 캐나다로 올 수 없자 블루제이스는 계약금액을 올리면서 최와 접촉을 계속했다. 최를 처음 본 스카우터 웨인·몰간과 함께 이번에는 블루제이스 사장대리인 패·길리등이 직접 서울로 원정(82년9월, 10월, 12월), 설득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제 금액과 계약내용에는 양측이 만족한것 같으나 남은 문제는 병역면제이다.

프로야구단들의 항의에 부딪친 한국관계당국은 해외로 진출하면 병역면제를 허가 못한다는 것이다.

최가 토론토란 인구 2백만의 도시에서 활약하는 것이 국위선양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외화획득은 둘째로 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뉴욕, 시카고, LA등 미국, 캐나다의 14개 도시(아메리칸리그 소속)를 3~9월까지 순회하며 경기를 벌인다.

한국에서 매일 「스포츠외교」, 「스포츠외교」하고 부르짖으나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프로와 아마스포츠의 비중은 전혀 다르다.

예를들어 지난 유멜리아시아경기때 한국의 김양곤선수가 마라톤 우승했다는 외신을 받고 사진을 구하러 이곳 신문사, 통신사등으로 백방 알아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반면 지난 8월 몬트리얼에서 단1회게임을 가진 한국의 조영증선수(축구)가 소속한 포틀랜드 팀버스를 보도한 이곳 신문을 보자.

몬트리얼에서 제일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가젯드지는 동양에서는 제일의 수비수라며 인터뷰기사를 싣는등 법썩을 떨었다. 축구는 ...스포츠로 인기 없는 경기에 속한다. 야구와는 비교도 안된다.

최가 블루제이스유니폼을 입는 것만도 이곳신문의 뉴스가치가 있고, 따라서 국위선양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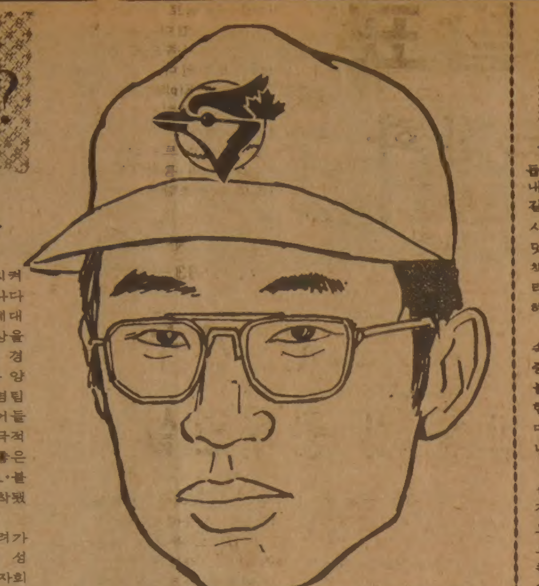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국프로야구의 신뢰도 문제이다 계약내용은 어찌됐든 81년 9월 최동원과 최동원의 부친(매니저) 최윤식씨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것은 블루제이스가 소속한 아메리칸리그의 승인까지 받았다.

만약 최가 병역문제 이유로 캐나다에 오지 않고, 한국프로야구에 스카웃 될때 토론토측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지난 7월 몬트리얼의 올스타게임 참관차 들른 한국프로야구리그의 서종철 커미셔너는 "최동원이 아직 블루제이스와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 안하고는 한국프로팀에서 뛸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야구리그가 블루제이스의 항의를 무시, 북미야구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최의 연고지팀인 부산롯데에 스카웃을 인정할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

금년에 미국프로팀이 최의 스카웃을 포기한 것은 최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금년 7월 볼티모아스카웃설은 낭설) 최와 블루제이스의 계약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동원선수가 블루제이스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4만명의 토론토교포들의 염원이고 60만 북미교포들의 기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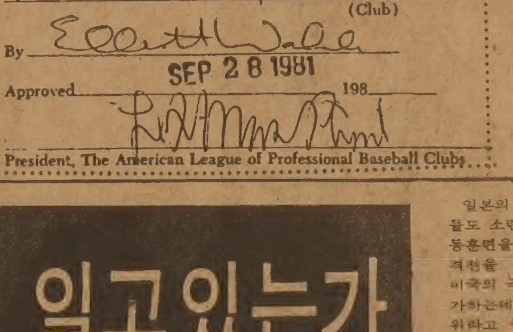
(유승민 기자)



崔東原

◆블루제이스 모자를 쓰고 있는 최동원 투수.

블루제이스측 계약유효 주장
교포들, 최의 해외진출 기대



Choi Dong Won
(Player)
Choi Yun Sik
(Home address of Player)
Toronto Blue Jays Baseball Club
(Club)
By Elliott Wahle
SEP 28 1981
Approved 198
President, The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

◆최동원선수와 아버지 최윤식씨가 블루제이스 인사부장 엘리옷과 같이 싸인한 최초의 계약서. 맨밑에 아메리칸리그 리·맥페일 프레지던트의 승인이 있다.

〈독자 투고〉

삶의 뜻

대각사 하생회(노영)

우리는 한번 또 한번 거듭 절망을 느끼며, 또 이겨내며 살아왔다. 끝내 풀릴 길이 없어 보이던 장애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덧 우리 마음 속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 말끔히 사라지고, 숱한 절망을 극복해 왔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우리에겐 가려진 불성이 있기에 스스로가 험한 생의 고통을 이겨내며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줄로 안다.

그렇다면 일체유심조(一体有心造)란 말이 있듯이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얼마나 큰 복을 우린 부여받은 것인가!

그러나, 모든 마음이 전부 우리가 행복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은 아니리라 보여진다.

자신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자신만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의 입장도 고려해볼 줄 아는 마음, 남의 마음도 헤아려볼 줄 아는 마음, 즉 역지사지(易之思之)의 도량이 우선되는 마음가짐이라 여겨진다.

사실 우리 중생들은 그 누구할 것 없이 이 사바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로병사가 모두 외로운 고통일진대 부자라고 고민이 없겠으며, 제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이라도 번뇌가 없겠는가?

이렇게 불쌍한 우리 중생들이 서로를 가엽게 여겨, 서로 돕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자신을 부모·자식처럼, 형제처럼 대해 주겠는가?

세계 어느 곳에 태어나고, 또 어느 하늘 아래 살든 우리 중생들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다툼이 없어야만 우리 자신이 성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무명(無明)을 떨치고, 무아(無我)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수행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아무런 구애됨 없이 서로에게 따뜻한 자비를 베풀어 모두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분명 그곳에 부처가 존재할 것이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2>

출발 ⑬

"2천만弗의 분실한 헤로인 찾아 달라"

그는 늙은이를 노려보았다. 당장 달려들어 목을 졸라버리고싶었다.

『당신네 두목을 직접만나서 이야기하고싶소. 트라이앵글인가 뭔가 하는 것을 말이요.』

늙은사내의 눈썹이 꿈틀하고 움직였다.

『모독하는 말은 삼가시요. 선생. 그리고 선생은 나와 흥정해야합니다. 나이외에는 아무도 만날수 없읍니다. 흥정은 오로지 나하고만 해야 합니다.』

『흥정? 무슨 흥정 말이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지요.』

늙은이는 톨톨톨톨 기침했다.

『남의 생활을 깨뜨려놓고 사람까지 납치해놓고나서 무슨 흥정을 하겠다는 거요? 이건 완전한 협박 아닌가?』

『그점은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지시한 일도 아니고…나로서는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우리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다시 행복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건드리면 당신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늙은 사내는 웃었다.

『우리 조직은 사소한 조직이아닙니다. 선생이 혼자라는 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백수천…아니, 그이상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뭘 해. 다 쓰레기 같은 놈들 뿐인데…』

『모독하는 말은 삼가시요.』

늙은 사내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먼저모독했어. 나는 결코 용서하지않을거요.』

그는 어느 새 조용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검은 안경의 사나이는 다시 웃었다. 마치 환의 말이 가소롭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원수가 됐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원수가 되면 좋을게 하나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흥정을 하자는건데. 이건 무턱대고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댓가를 지불할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사협정으로서…』

『흥정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야해. 칼 보고 신사협정이라는거야. 아뭏든 좋아요. 언제까지 말싸움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그 부탁이라는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생각 잘 하셨읍니다. 그럼 말씀 드리지요. 우리는 수개월전에 어떤물건을 잃어버렸읍니다. 대단히 값나가는 물건인데 운반도중에 잃어버린 거지요.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물건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물건인데요?』

그는 냉담하게 물었다.

『헤로인입니다. 6킬로나되지요. 시가로 치면 2천만 달러나 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각지로 보낼 물건인데, 운반도중 한국에서 분실됐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에서 실패란 있을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맙니다. 선생을 초청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읍니다. 선생은 그 방면에는 전문가이시니까요.』

朴男 그림

구독은… 533 2361

東海에 激浪이 일고있는가

美·蘇軍備 대폭강화 모의攻防戰 벌이기도

蘇極東軍 制海權 西方압도
美는 日에 F16配置등 對應

최근 동해성을 중심으로한 아시아해역에서, 미·소의 군사적움직임이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초 미국의 핵항모 엔터프라이즈호를 중심으로 1만5천여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 미함대기동훈련이 동해상에서 실시됐을 당시 미·소간에 실전을 방불케하는 모의해상전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해상의 동서파고는 더욱 높았다.

베트남전이후 지난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취해진 탈아시아정책과 함께 미국이 이지역의 군사적 비중을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 소련은 극동에서 군사적 증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결과 극동 소군은 육군 46개사단, 공군전폭기 1천2백대, 해군의 핵잠수함 80척을 포함한 1백66척 규모로 늘어 현재 극동의 재해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처지에 까지 이르렀다.

더구나 소련은 그들이 자랑하는 전략폭격기 백파이어70대 이상을 시베리아와 바이칼호 부근에 실전 배치하고 전체 SS20중거리 미사일부대의 약3분의1을 극동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미7함대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전지역을 유사시 그들의 사정권에 두는 군사적 목표로 만들어버렸다.

소련의 백파이어기는 이미 동해상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훈련까지 실시하게 됐으며 그 행동방견은 극동및 태평양지역까지 미치는 것으로. 미태평양주둔군사령관인 로버트·롱제독은 소련의 백파이어기가 태평양및 극동항로의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미7함대소속 핵항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 미드웨이등 13척의 함정과 장병 1만5천명이 지난달 초대규모 미함대훈련을 동해에서 단행한것도 결국은 이러한 소련의 극동권증강과 동해진출에대한 무력시위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미국은 그들의 막강한 7함대전력을 바탕으로 소련의 이지역 움직임에 경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현상을 가져왔다. 소련은 미국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하고있을 당시 백파이어기등 1백30대이상의 각종 전투기 폭격기와 태평양함대소속 잠수함등을 동원, 오히려 미7함대의 기동훈련을 대상으로한 모의공격전을 시도하게됐고 미국도 이에맞서 반격훈련을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련은 7함대의 공격능력정도는 언제라도 능히 맞설수 있다는 그들의 군사적 우위를 미국측에 시위하려했던 것이다.

미태평양함대사령관 폴리제독은 이같은 소련의 대응을 『비록 미소간의 모의 공방전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그만큼 동해상의 대결기운이 고조되고 있음을 뜻하는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련의 극동진출을 우려했다.

일본의 방위관계 전문가들도 소련이 미7함대의 기동훈련을 대상으로 모의공격전을 실시했다는 것은 미국의 극동전력을 과소평가하는데서 나온 의도적행위라고 풀이하고 현재 극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재해권이 서방을 압도하고 있는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일본과 1천해리해상교통로 방위문제를 협의하면서 소련극동전의 전력증강을 의식, 아시아지역의 방위력증강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특히 미국은 소련의 백파이어기가 동해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오는 85년부터 일본의 미사와(삼택)기지에 50대 정도의 F16기를 배치키로 결정한 것도 결국은 소련의 백파이어기에 대처하고 일본의 1천해리 해상로 방위에 따른 보완책으로 취해진 것으로 이는 미국의 극동중시전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성남 중고등학교
신 년 파 티

크고 작은 많은일이 우리에게 있었던 82년도를 보내며 성남가족을 한자리에 모시고져 합니다.
오셔서 신년의 계획과 포부를 함께 의논하시는 자리로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때 : 83년1월2일(일) 오후8시
곳 : 11 Bethanyleigh Dr. Scar(약도참조)

McCowan / Sandhurst / Silbury / 11 Bethanyleigh / Finch

연락처 : 299—5736(이종후)
248—6531(김영철)
* 많은 경품이 준비 되었음.

성남고등학교
동문회장 서광철

——〈감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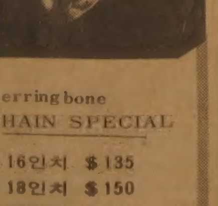
지난 12월12일(주일) 저희 교회에서 가졌던 김택규목사 취임환영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격려의 말씀과 화환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지상을 통하여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년말년시를 기하여 아래와 같은 행사가 있사오니 참석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12월19일(주일) 성탄음악예배
12월25일(토) 성탄예배
12월31일(금) 송구영신예배
1월 1일(토) 제직수양회(라마다·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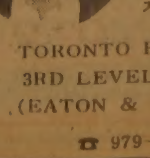
중앙한인연합교회
당 회원및 교우 일동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 16인치 $135
□ 18인치 $150
□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 · 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미소·말더듬·안절부절·이야기중 沈默등

거짓말엔 症狀이있다

하버드大 로젠탈교수팀 주장

▲어린이들에게 있어 거짓말은 일종의 놀이라고, 그 거짓말이 나쁜것이라는 개념이 이뤄지는 때는, 6살 전후 부터라고.

대답을 하지 않거나 종잡을수 없는 대답을 한다. 믿을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발가락으로 땅을 비비적거리고 몸을떨며 손으로 머리를 긁적거린다. 기원전9백년께 파피루스에 기록된 거짓말장이의 증상이다. 거짓말에 대한 현대의 심리학적 연구결과도 3천년전에 기록된 이학설에서 과히 멀지않다.

거짓말에는 증상이 따르고 그증상을 통해 거짓말을 탐지할수있게된다. 거짓말탐지에 과학적인방법, 심리적증거등 수없는 방법이 있으나 결코 완전할수는 없지만 아뭏든 거짓말에는 증상이 따른다.

5년간 이문제를 연구한 하버드대의 로버트·로젠탈교수팀을 비롯한 수많은 학자·연구팀들이 내놓은 거짓말의 증상은 미소, 말더듬, 안절부절, 애매함, 얘기도중 오랜침묵등이 있고 너무 빠르게 너무 간단하게 또는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나 그럴듯하게 꾸민 대답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란 어린아이들에겐 놀이다. 그들의 세계에서 거짓말이란 옛날이야기이고 만화이며 텔리비전 코미디이고 현실이며 희망이고 도피다. 거짓말이 나쁜것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것은 6살전후이지만 지나치게 솔직한것도 무안한 일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도 그후부터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방법 형태적인 연구로 거짓말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알아낼수 있가를 분석해내고 있다.

로젠탈팀은 거짓말장이에게는 어떤 특징이있는가, 어떤사람들이 거짓말을 빨리 간파해낼수있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거짓말탐지의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거짓말 탐지요소는 목소리라는점을 밝혀냈다. 거짓말은 얼굴에서보다 목소리를 통해서 들키기쉽다는것. 마주대면해서 하는 거짓말보다 전화나 목소리만의 거짓말이 간파되기 쉽다.

전화목소리 看破가 더 쉬워

社交的이거나 活動的인사람 「우수한 探知機」로 손꼽히고

그러므로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 전화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경우 들킬확률이 가장 많다는 분석이다. 얼굴표정은 웃고있으면서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감출수 없었던 닉슨의 거짓말이 그좋은 예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육감이 발달해있어서 거짓말을 잘 알아챈다는 통념이 있지만 연구결과는 그반대로 나타났다.

고교·대학생 2백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는 여성은 얼굴표정을 알아보는데는 우수했지만 거짓말자체를 간파하는데는 서툴었다는 것이다.

『정중상냥하게 남의실수를 눈감아 버릇한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때문』이라는 것이 로젠탈팀의 이에 대한 분석이다.

우수한 거짓말탐지기라고 할수있는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 중재적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좋은 인간관계의 운영을 위해 특히 거짓말에 민감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능한 거짓말장이는 못된다. 또한 부류의 우수한 거짓말탐지기는 불안 걱정이 많은 사람들, 다른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경계태세에 있기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표현할수는 있지만 거짓말에는 소질이 없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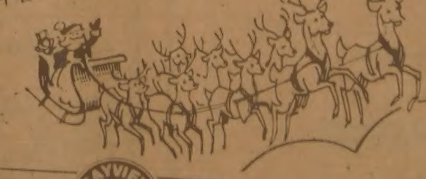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 0189

▲미녀들 몸매자랑—글래머매거진이 선정한 「목숨을 바쳐도 좋을 5명의 육체」중 보·데릭(왼쪽)은 자신의 종아리가 제일 자신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모델 크리스티·브링클리(위)는 비례적으로 균형잡힌 몸매가 자랑이며 빅토리아·프린시펄(아래왼쪽)은 등이, 아니타·모리스(아래오른쪽)는 잘록한 허리가 각기 마음에 든다고. (UPI)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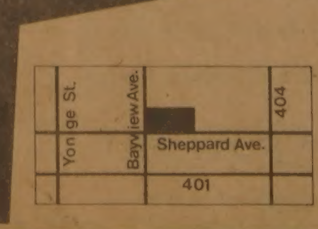
여러분의 년말연시 축하광고및 인사는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한국일보社에게 맡기십시요. (☎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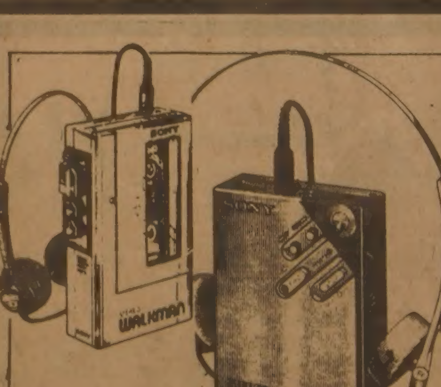
금번 SONY 회사에서는 닥아오는 X-MAS및 연말, 연시 선물품목으로 세계적인 인기리에 판매중인 SONY BETAMAX비데오를 파격적인 최저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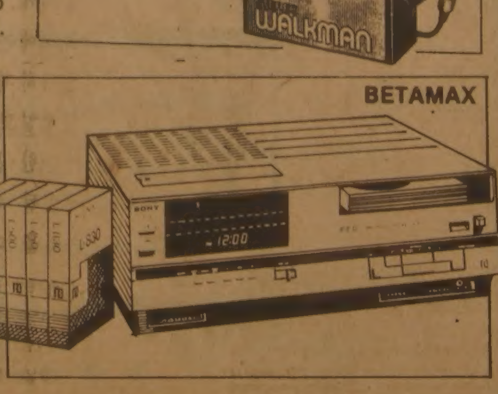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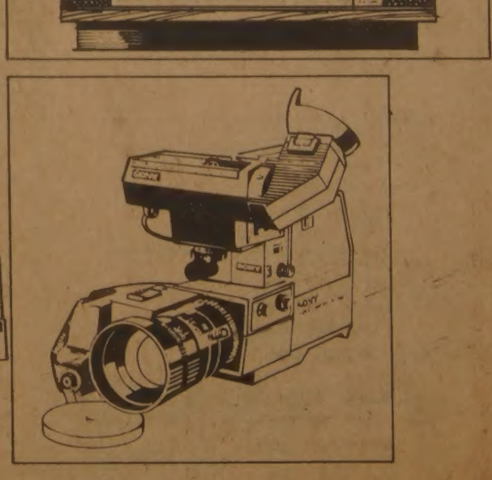


취급품목
Stereo
Television
Video

Sony
Luxman
Pioneer
Sansui
Toshiba
J.V.C.
Panasonic
Sanyo
A.K.G.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旅券法등 16개法案 처리

國會本會議 兵役法등 2개案은 票로대결

資源관리법은 다음會期로
再開發法싸고 建設委논란

국회는 14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旅券法 개정안등 16件의 法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本會議 散會직후 法司委를 속개, 사회교육법안등 18개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常委활동을 모두 끝냈으나 建設委만은 도시재개발 발안의 처리를 싸고 與野간에 합의를 보지못한채 마지막 진통을 하고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與野간에 爭點이 되었던 資源관리 법안등은 다음 국회 會期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이날 본회의는 16개法案중 民韓 국민등 야당이 반대한 兵役法과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表決에 붙여 兵役法개정안은 在席 2백50명중 可1백52 否98표,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은 在席 2백51명중 可1백55 否96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병역법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韓光玉의원(民韓)은 『국군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가 아닌 치안업무에 개입하는것은 헌법제4條의 明文규정에 어긋나는 違憲』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軍과경찰의 임무에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획일화현상을 빚어내 국민생활에 위압감과경직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전경대원선발절차를 二元化시킨것은 자칫 범무행정에서 軍과 경찰내부에 위화감조성과 혼란을 야기시킬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金龍洙의원(民正)은 『장차 예상되는 正規戰과 非정규戰에 대비하고 速戰速決의 전후방동시 戰場化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戰警과 현역병의 자질의 균형유지를 기대할수 있고 ▲병역의무자중 剩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제도의 창출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있는 제도를 확대운영토록 개선한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에대한 반대토론서 徐淸源의원(民韓)은 『의무경찰제의 신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무경찰의 직업의식과 책임감결여 업무미숙에 있다』고 주장했고 玄敬大의원(民正)은 찬성토론에서 『현행경찰제도에서 부족한 경찰人力을 보강함에따라 치안수요에 대비할수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통과된 16개법률안은 다음과같다.

▲여권법개정안▲兵役法〃▲전투경찰대설치법〃▲경찰공무원법〃▲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공업표준화법〃▲해외資源개발촉진법〃▲鑛業法〃▲석유사업법〃▲한국가스 공사법안 ▲석탄需給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생활보호법〃▲산업災害보상보호법〃▲근로복지공사법〃▲自活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鳥獸처리장및 化製場에 관한 법률폐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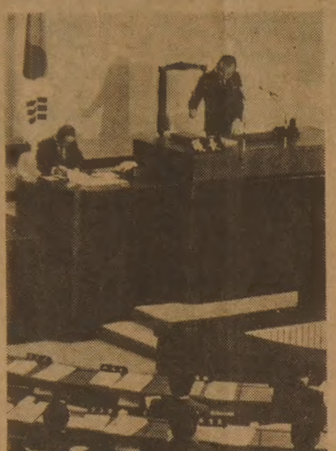
民正, 再開發法 오늘통과방침

民正黨은 15일 국회建設委를 열어 도시再개발법개정안을 13일밤 10人小委가 마련한 修正案대로 통과 처리할 방침이나 民韓黨이 不參을 고려하고 있어 이 법안 처리를 두고 계속 難航이 예상되고 있다.

李鍾贊民正黨총무는 14일하오 『小委에서 與野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 이번 국회會期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절차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논란을 벌일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번 會期에는 처리할수 없다』고 建設委참석을 반대하고 있는데 林총무의 반대로 14일 열릴 예정이던 建設委와 小委는 民韓黨의원들의 不參으로 열리지않았다.

이에앞서 13일밤 10人小委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중 ▲재개발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연장하고 ▲보호받을 賃借權범위를 확대, 등기가됐거나 또는 등기가되지않았다해도 주택賃貸借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賃借權으로 그범위를 확대하고 ▲재개발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구역의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키며 ▲토지수용裁決기관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정하고 ▲도시재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로흡수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국회本會議는 14일16件의 法案을 통과시켰다.

副總理등 解任案 오늘表決

民韓·議政同友會 제출
經濟혼란 책임물어

民韓黨과 議政同友會 소속 의원 96명은 14일 상오 金融實名制 파동에 따른 경제혼란의 책임을 물어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姜慶植재무부장관에 대한 解任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解任案은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발의된지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처리해야한다는 國會法 105條7項에의거, 15일 무기명비밀투표에 붙여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이날상오 黨職者회의를 열어 이解任案을 否決시키기로하고 15일상오10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국민당은 해임안을 내지않기로 했다.

民韓黨과 議政同友會는 이날 解任案제안 이유에서 金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총책임자로서 취임후 1·14, 5·18, 6·23, 6·28, 7·3조치등 일관성없는 일련의 경제정책발표로 경제에 더큰 충격만 주는 결과를 빚었고 특히 7·3조치 발표는 물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僞證을 함으로써 야당과 국민들을 우롱했고경제를더큰혼란으로몰고갔다고주장했다.

해임안은 또 姜재무장관은 각종 稅法개정안을 제출한뒤에도 표면상으로는 실명제의 실시를 포기하지 않은것처럼 僞證했으며 특히 금융정책과 稅制정책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일관성도없이 갈팡질팡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국민경제에 큰충격을 던져준 직접적인 책임을면할수없다고주장했다.

이번 해임안 제출에는 民韓黨소속의원 81명전원과 議政同友會소속의원 17명중 15명이 서명했다.

한편 民正黨의 金琫泰대변인은 이날 『實名制연기가 포함된 歲入 歲出예산안을 찬성 통과시켜놓고 民韓黨이 관계장관에 대한 解任案을 내는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黨利黨略的次元의정치공세로서 매우유감된일』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이 3軍부대시찰도중 공군장병들을 격려하고있다.

"정신·經濟교육 철저시행"
全대통령, 동부전선 3개부대방문

全斗煥대통령은 세밑을 맞아 14일 상·하오에 걸쳐 동부전선의 陸海空軍 3개부대를 차례로 방문, 부대현황에 관해 보고를 듣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동부전선 육군○○부대에 도착, 부대장으로부터 최근의 북괴군동향과 부대현황등을 보고받은뒤 『모든地形熟知훈련을 철저히시키고 야간훈련과 冬季훈련에 특히 유의해 훈련을시키라』고 지시하고 『경제가 성장돼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점을 명심,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경제교육도 아울러 철저히시행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행정요원도 평소에 철저히 전투요원화훈련을 시키도록하라』고 지시하고 『평소에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잘갖추어 有事時軍民이 일치단결해 대처할수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해안방어에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휘관이 소신과 자신감을 갖도록해 지휘권이 확립되도록하라』고 아울러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동부전선 해군○○부대를 시찰, 부대장으로부터 海域경비상황과 海上對간첩대책, 漁撈보호대책등에 관해 보고받고 『앞으로 해군작전은 외국의 작전을 그대로 모방치 말고 우리실정에 맞도록 발전시키라』고 말하고 『陸海空 3軍의 합동작전능력을 고도로 배양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공군○○부대를 시찰, 制空작전등방어대책, 防空작전지원대책등을 보고받은뒤 『공군은 유사시 최초로 敵을 요격해야 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있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잘살려 육해군과 한팀이되어 작전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공군부대에서 현황보고를 들은뒤 基地內비상대기실에들러 대기중인 F5A機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비상출동과 敵機요격시범을 참관했다.

이날 전방시찰에는 尹誠敏국방, 黃永時육군, 李錫秀해군, 金相台공군참모총장이 수행했다.

東京외교관측통 분석
北傀, 親中共으로 轉換
經濟악화·金日成세습등 이유

【東京·北京(?)=聯合】지난 수십년동안 중공과 소련사이에서 기술적으로 균형관계를 유지해오던 북괴金日成이 최근 공개적으로 중공쪽으로 기울기시작한것으로 외교관측통들은 보고있다.

최근 북괴와 중공사이의 관계활성화가 분단한반도의 세력균형을 깨뜨릴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북괴·중공간의 화해무드는 한국·소련·대만등 주변국가로부터 조심스럽게 관찰되고있다.

한국전쟁에서 무력동맹관계를 가졌던 중공과 북괴는 76년 毛澤東사망이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왔었으나 지난해 중공최고지도자 鄧小平을 비롯한 胡耀邦, 趙紫陽수상등 고위지도자들이 북괴를공식방문해 북괴·중공관계는 급속한 밀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10월에는 金日成이 76년이후 처음으로 文革이후의 중공을 방문했으나 그후 소련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북괴가 두공산대국에 「공평한 경의」를 표했던 과거의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다. 과거 크렘린과 평양과의 관계악화는 金日成이 브레즈네프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東京의 관측통들은 북한의 경제악화, 군사무기공급, 金日成의 권력세습등 3가지 요인때문에 金日成이 친중공쪽으로 전환하게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은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인도차이나 지역과는달리 중공과 소련의관계개선으로 영향을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앞으로 장기간동안어려움을 겪게될 中蘇회담에서 한반도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을것같다고 말했다.

金총리, 페루大統領과 要談

【리마=河長春특파원】페루를 공식방문중인 金相浹국무총리는 13일 낮12시30분(한국시간14일상오2시30분) 대통령궁으로 벨라운데 페루대통령을 예방, 양국공동관심사에 관해 약30분간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벨라운데대통령은 두나라의 우호협력관계가 확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謝意를 표명하고 金총리의 방문으로 두나라간의 상호이해증진과 협력증대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金총리는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全斗煥대통령이 벨라운데 대통령의 訪韓을 희망하는 인사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金총리는 아리아스外相을 만나 페루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를 지지해준데대해 謝意를 표명하고 韓半島정세와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설명했다.

아리아스外相은 『페루정부는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페루정부가 할수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鄭然春총리공보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徐相喆동자부장관은 몬테로 페루자원에너지장관과 이날하오 兩國에너지장관회담을 갖고 韓·페루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내년3월 리마에서 첫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리마를 방문한 金相浹국무총리가 13일 페르난도·벨라운데·테리 페루대통령과 회담하고있다. 金총리 우측은 徐相喆동자부장관. 【리마 (페루) 13日AP聯合】

海外 公舘長級 대폭異動
제2次官補 朱炳國 / 企劃室長 徐京錫 / LA총영사 黃光漢

정부는 14일 黃光漢駐가나대사를 駐로스앤젤레스총영사로, 徐京錫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朱炳國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외무부 제2차관보로 각각 발령했다.

정부는 또 [illegible]駐벨기에 [illegible]駐[illegible] 吳忠會駐베네수엘라 張[illegible]駐사우디아라비아 [illegible]駐이디오피아 李時容駐라이베리아 成泰燁駐가봉대사와 朴民秀駐로스앤젤레스 총영사 邊正乾駐카메룬대사등 9명의 해외공관장과 沈基哲기획관리실장 李昌洙 제2차관보를 외무부본부 근무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외무부본부와 在外공관의 순환 근무원칙에 의한것으로 이중 沈基哲기획실장과 李昌洙 제2차관보는 해외공관장에 내정된것으로 알려졌다.

全黨大會 연기
民韓黨 결정

民韓黨은 14일 당무회의를 열고 黨憲상 오는1월중 치르기로 되어있는 전당대회를 연기, 3월초순이전에 열기로 결정했다.

核동결決議案채택
유엔 美·蘇에 즉각생산중지 促求

【유엔本部聯合】유엔총회는 13일 미국과 소련에 대해 核무기생산의 즉각동결을 선언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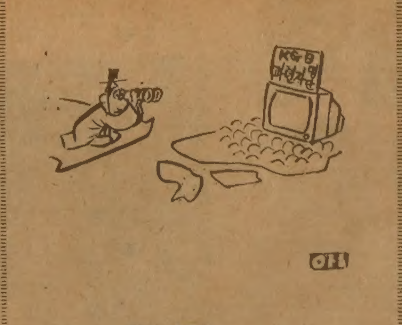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총회가 처음으로 채택한 이 核동결결의는 이날 회의에서 찬성1백17 반대17 기권8로 통과됐다.

이 결의는 核무기와 운반장비의 생산및 배치중지를위해 美蘇가 서로 협의토록 촉구하면서 양국은 또 무기사용목적을 위한 核물질생산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총회는 이어 모든 核무기보유국가에 대해 核무기 생산동결을 촉구하는 두번째 결의안을 찬성1백22대 반대16 기권6으로 채택했다.

그리스를 제외한 서방동맹국과 미국은 이들 결의안에 반대한 반면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동맹국과 그리스는 2개의결의안에찬성표를던졌다.

社会漫評



關心集中…

地平線

어느 시대나 도적은 있게 마련이며 그도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두고 죄질의 경중을 가리기는 극히 어려운일이겠으나 문화재를 넘보는 도적은 가장 용서받기 힘든경우라 할것이다. 지난 11일 경남울산의 고찰 간월사에서 야음을 틈타 석불의 머리만 잘라 달아난 도적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석조여래 좌상은 절의 주존불로 신앙적으로는 예배의 대상으로 존중되겠으나 고고미술품으로서도 귀중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래서 1960년에 지정문화재가된 보물 370호이며 값으로는따질수가 없는 나라의 보배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측면이나 지정문화재 보호라는 관점으로보아 도저히 있을수없는 사건이 일어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중보라할 지정문화재는 대체로 국보2백5점과 보물 7백30점이다. 한데 이가운데 불교와 관련이 있는 유형문화재가 국보의 75%, 보물의 79%를 차지한다. 또 이같은 불교관계 지정문화재 가운데는 박물관과 공공기관 및 개인소장의 것도 있지만 그 절대다수는 사찰 소관이다. ▼사찰은 불교신앙의 한 구심점이요 수도하는 승니들의청정한 도량이지만 다른 한편 나라의 문화적인 중보를 소장, 관리하고 있는 보고라하겠다. 한데도 근래 이들사찰문화재의 도난사건이 너무나 잦은것은 큰 문제거리가 아닐수 없다. 마치 무주물인듯 도적들이 함부로 드나들며 훔치고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국사 석가탑을 뒤지고, 밀양 표충사의 오동은입사향완을 훔쳐내고, 송광사 불감을 들어 내는가 하면 영탑사의 금동삼존불상이 도난 당하는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사건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에보태 비지정문화재는물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불상사 까지를 합쳐 생각 한다면 가위 부지기수라 할법하다. ▼우리문화재에 대한 일제때의 수탈도억울한데 해방후의 현실도 이러하니 새삼 1차적인 책임을 사찰과 불교종단에 묻지않을수 없게한다. 대부분이 신앙의 상징이요 예배의 대상이기도 한 그런 불교문화재에 대한 향심마저 의심케 한다는 것이 일반의 생각일듯하다. ▼다행히 간월사 석불의 불두는 울주 국도변에서 되찾았다 하니 그렇다손 쳐도 앞으로는 좀 더 사찰 주지들에게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거듭되지 말아야 하겠다. 불교성보의 보존·관리는 그대로 불법의 수호와 같은 뜻을 지닌진대 이 일을 어찌 소홀히 할수가 있겠는가.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맡겠읍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연말 연시의 인사조차 아차하는 사이에
놓치게 됩니다.
올해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 533-2361
한국일보 광고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다양한 문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고 받는
손길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겠읍니다.

＊성탄' 특집호
23일 발행(광고마감 21일 오후5시)
＊신년 특집호
30일 발행(광고마감 28일 오후5시)

□광고 크기및 가격
●명함크기, 공동인사 광고
1칸에 20불
○상호(단체명)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만을 기재합니다.
□지상연하장
●신년호에 게재
○명함크기 :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이름및 주소,
간단한 내용
□접수···광고문안과 수표를 동봉하셔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주문시 크래딧카드 넘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광고국
DAILY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W. TORONTO, ONT., M6H 1Z7

토론토시
쓰레기 수거일변경
◎쓰레기 수거 변경날짜
▲1982년 12월24일(금)
▲1982년 12월27일(월)
▲1983년 1월 3일(월)
이 3일은 공휴일로 간주되어 쓰레기를 수거치 않음.
= 정규 월요일(12월27일)은 화요일(12월28)에 수거함.
= 정규 금요일(12월24일)과 화요일(12월28일)은 수요일(12월29일)에 수거함.
= 정규 월요일(1983년 1월3일)은 화요일(1983년 1월4일)에 수거함.
= 정규 화요일(1983년 1월4일)은 수요일(1983년 1월5일)에 수거함.
정규 부피있는 물건및 신문뭉치는 수요일, 1982년 12월22일및 1983년 1월12일에 수거함.
그러므로 수요일자인 12월29일및 1983년 1월5일에는 수거치 않음.
당신의 쓰레기는 정확한 날에 바깥에 놓아주시는 협조를 바람.
※공지사항 : 토론토에는 유리와 쇠붙이를 재생하는 17개의 장소가 있음.
10월동안, 249톤의 신문지와, 51톤의 유리조각, 4톤의 깡통이 수거되었음.
더 이상의 내용은 367-7742로.

MX로 窮地에 몰린 레이건
上院에 最後 설득戰

軍備증강案 戰後 첫 否決
「反核조직」成長도 큰 장애

美下院에서 2백45대 1백76으로 부결된 MX미사일생산계획은 다음고비인 上院에서는 어떤 판가름이 날 것인가. 지금 레이건은 이에대한 설득에 온힘을기울이고있다.

레이건의 MX계획은 2차대전후 미국의 대통령이 제안한 軍備계획가운데 최초로의회에의해 거부된것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 근본원인은 대개 레이건의 군비증강政策에대한 견제, 미국내에서 착실히 성장하고있는 핵무기 반대운동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 중간선거를 계기로 레이건에게 닥쳐온 의회컨트롤 기반의 후퇴, 그리고 무엇이 사실상의 이슈인가를 혼동케할 정도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소위『밀집배치』란 특이한 미사일 배치방식이 보다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MX생산이야말로 소련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궁극에는 군비감축회담에서 소련으로 하여금 협상에 응해오도록하는 가장 실효있는 장치라는 신념을가지고 MX를 「평화수호자」라고 불렀던 레이건과 그의 백악관 진영에게는 하원에서의 부결이 실망이기보다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존·베시合參議長이 의회에서 자기 참모 5명중 3명은 밀집배치의 實效性에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렇지않아도 그 實效性때문에 인기가 없던 MX 배치계획의 추진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런 반대 무드는 더욱 퍼져 나가 의회 일부에서는 소련이 핵무기에있어 미국에 우월하다는 레이건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무드가 생겼는가하면 군비증강을 역설해왔던 공화당의원들 가운데서도 조차 레이건은 지난번 선거의 결과와, 레이건의 입후보때 많은 지지를얻었던 군비증강에있어 국민의 생각이 변했다는점을 잘못읽은것 같다는 말도 뛰어 나온다.

이들은 MX에대한 정부의 국민설득노력이 아주 부족했고, 통상 자기의뜻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던 레이건도 이번에는씨 잘 하지는 못한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MX계획은 단순히 미사일이란 무기만의 문제가 아닌 다분히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빨리 이를 간과한 레이건은 지난 10일 상원군사위 존·타워위원장등 여러인사들을 만나 「MX설득전」을 편데이어 11일에는 정례주말라디오연설을 통해『배치방법이 MX미사일의 이슈가 될수없다. 상원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평화수호를위한 중대한 기회를 잃게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레이건연설의 뒷부분은 MX계획을 내놓으면서부터 강조한 레이건의 신앙같은것이지만 前者는 MX계획의추진을위해 말썽많은 배치방법은 양보할수도 있으며 계획자체를 위해서는 포기할수도있다는 타협의 제시이다.

그것은 배치방법에 대해 기자들에게『의견일치를 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고있다』고말함으로써 배치방법에서 후퇴를 시사하기도했다.

이런 여러상황이겹쳐져 지금 상원의 분위기는 현격히 다른것은 아니지만 하원의분위기와는 내용이 다른것으로 되어있다.

상원이 공화당다수라는 사실외에도 문제자체의 이해나 레이건의 입장에서 보아 다소 진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MX를 생산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와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엄격히 다른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이案을 부결시켰던 하원의원들조차『하원의 표결로 MX계획이 죽은 것은 아니다. 레이건은 생산계획뿐아니라 그의 밀집배치 계획까지를 살릴 수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계획을 검토해야하고 지지자들을재규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총생산비 2백60억달러 가운데 1차 5基의 생산을 위해 내년도예산에 계상되어있는 9억9천만달러를 삭감하면서도 하원이 MX에대한연구조사비를 그대로 둔 것은 MX계획이 미국으로서 쉽사리 포기할 수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나타낸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군사위의 타워위원장이나 잭슨위원같은 일단의 의원들이 레이건의 타협안에 동조적이며 캘리포니아의 앨런·그랜스턴, 사우드캐롤라이나의 어네스트·홀링스같은 민주당의 MX반대선봉장은 사랄도 금년에 당장 MX계획을 죽여 버리는 투표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인하고있다.

물론 이런 무드의 한편에는 레이건이 MX미사일을 소련과의 대결에 이용한것등 너무 깊이 빠져드는것은 잠못이란 부정적인 무드도 잠 있다.

어쨌든 지금의 공기로는 상원이 취할것으로 상정할수 있는 길이란 대개 3가지로 분류되고있다.

첫째 생산비지출에 단서를 붙여 찬성하는 방법, 즉 단서란 미사일이라든가 밀집배치란데대한 의무를 지우지않은채 내년의 적당한 시기에 가서 의회의 결의로써 이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둘째 생산비는 부결하나 조사개발비는 그대로 두는 방법, 이것은 MX에대한 연구를 가능케한다.

세째는 MX계획자체를 아무런 결정없이 내년까지 일단 동결하는 방법. 국방성과 의회가 이에대한 충분한 검토를할수 있도록 하자는 방법이다. 민주당의 샘넌의원같은이가 이 마지막방법을 적극 찬성하고있다.

MX계획은 반대자들의 불평처럼 충분히 설명되지못한 점은 있지만 내년까지 동결이란 내년1월부터 임기가시작되는 새로운 의회로 이에대한 결정을 넘기자는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26석이나 줄었다는 물리적인 변화때문에 대체적으로 레이건에게는 거부적일 것이라는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따라서 지금의회보다 레이건의 MX안에 결코 더 동조적일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수없으며 그만큼 레이건에게는 박두한 상원에서의표결이 절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회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괴상한 밀집배치방식을 빼놓고는 MX미사일의 가공할 위력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다.

그것이 소련의 강력한 비난과 그 막대한 비용및 레이건에 대한 거부적인 무드속에서도 쉽사리 MX계획을 내던지지 못하는 이유인 것도 사실이다.

이계획을 추진하고 있는행정부관계자들은 소련이 SS18 SS19級의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한 MX는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네바의 전략무기감축회담 미국수석대표인 에드워드·론니는 만약 의회가 MX계획을 부결시킨다면 지금 미국이 내놓고 있는 군축제의자체를 재편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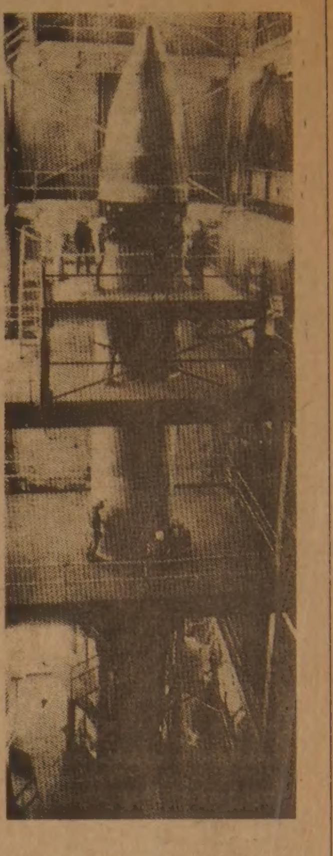
미국이 만약 유럽의 미사일배치계획을 철회한다면 소련도 중거리미사일을 반이상 줄이겠다고 한소련측의 전에 없는 제의는 이런 분위기를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이상감소란 현 6백기의 소련중거리미사일을 2백50기수준 (유럽에 1백50기、아시아에 1백기) 으로 줄이는 것으로 1960년대 美·蘇미사일경쟁시대가 열린후 최저수준에 이른다는 말이 된다.

지금 미국의 전략핵무기평가는 미국이 각종핵미사일5백60기에 비해 소련이 3천48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소련측은 미국6백63기 (영국、프랑스、서독을 합치면 9백81기)에 소련은 9백75기로 소련측이 열세라는 주장이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번민하는 레이건 「平和 수호자」 MX를 내 머리속에 밀집 배치하란 말인가。 <外誌>


◇MX발사실험모델。레이건의 「밀집배치방식」이 과연 이 슈퍼미사일을 적의공격으로부터 보호할수 있겠느냐 하는문제를 놓고 美행정부와 의 입씨름이 한창이다.

정기國會 마지막陣痛
與野、도시再開發法 수정안놓고 神經戰
民正 “小委서合意된것 이해못해”
民韓 “第3者 收用權발동은 不當”

與野가 만장일치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등 모처럼 和合의 분위기에서 閉幕까지 順航할것으로 보이던 정기국회는 民韓黨과 議政同友會가 제출한 일부 경제각료의 解任案과 도시再개발법개정안의 처리로 마지막 陣痛。

특히 도시 재개발법안은 다른 常委는 모두 문을 닫았는데 建設委만은 재벌기업의 都心地개발이 논란되는 가운데 마감 시간을 지나 뒤늦게 때아닌 정책질의를 하고 小委에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마지막으로 걸린 도시 재개발법안은 본회의가 각종 法案을 처리하는 방망이 소리로 요란한 14일 하오 늦게까지 與野간에 밀고 당기느라 神經戰을 계속.

건설위는 이날상오 도시개발법 개정안 10人심사小委 (위원장 李珍雨의원) 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小委가 합의한 수정안을 채택한 예정이었으나 與野간의 의견이 엇갈려 회의는 결국 不發。

10人小委는 13일밤 11시30분까지 정부가 제출한개정안 原案에서 ▲재개발지구건축물의 분양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보호받을 貸借權의 범위를 확대、登記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택 賃貸借보호권의 요건을 갖춘貸借權도 포함시키도록했고 ▲재개발사업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구역에 토지소유자를 참여시키는것등을 골자로한 修正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었다.

이러한 小委案을 14일상오10시 建設委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었고 이에 앞서 9시30분에 小委를 열고 전날밤 小委에서 民韓등 야당의원들이 주장한 제3개발자의 收用權발동허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私有 재산권의 침해소지를 막기위해 정부에게 이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꼬리를 붙여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키로 했던것.

이날상오9시30분에열리기로했던 小委에 民韓黨의원들이 아무런 해명도없이 불참、회의가 열리지못했는데 이는 林民韓총무의 不參지시로 밝혀졌다. 이같은 民韓黨의태도돌변을 전해들은 裵命國위원장은 즉각 李鍾贊民正총무에게 전화를걸어 이미 10人小委에서 여야가 수정안을 통과시킨 그간의 사정등만하고 『林民韓총무에게 회의가 열릴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SOS를 치기도。

與위원장은『民韓黨이 小委에서 합의처리까지 해놓고 전체회의에 不參하겠다는것은 이무리 상식을 동원해서 이해하려해도 이해할수없는 처사』라며『이들이 조만간 회의에 응해와 이번회기중에 통과처리할 수 있을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했다.

이에대해 林民韓총무는 『오늘 9시30분에 小委일정이 짜인것을 보면 재개발법 개정안이 어제밤 小委에서 통과된것이 아니지 않느냐』며『지난번 李民正총무와 상임위 운영문제를 논의할때 李총무가 필요하면 공청회라도 열어 이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계류의사를 밝힌바가있다』고 말하고 13일밤 여야합의로 修正案이 통과된사실을 인정하려들지않았다.

林총무는 또『收用權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제도이지 재벌들에게 개발實益이 돌아가는 재벌재개발에 함부로 濫用되어서는 안된다』며『小委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든안됐든간에 民韓黨은 전체회의에는 불참할것이며 이번회기에는 절대로 이개정안이 통과될수 없을것』이라고 強硬자세

그런데『小委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총무말과는 달리 이날하오1시30분 林총무방에 나타난 申元湜民韓黨간사는『그 수정안이 어제밤 小委에서 통과된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하고『다만 제3개발자가 수용권발동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되지않으며 재개발지역내 공공시설을 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재개발前원주민의 再入住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까지 수용권발동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보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등 버스떠나고 나서 손드는식의 앞뒤가 안맞는 설명을 하기도.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상오부터 건설위원장실에 나와있던 金宗鎬건설장관은 裵위원장에게『내일은 방망이를 좀 쳐달라』며 발길을 돌렸다.

당초 民韓黨은 이 개정안을 이번회기중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林鍾基총무의 원내전략에 따라 일단 建設委전체회의의 토론종결상태에서 계류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13일 정책질의에서 고조됐던 반대분위기와는 달리『재벌들의 收用權제한등 문제조항만 고친다면 영세지주들에게도 이득이 적지않다』는 방향에서 10人小委구성에 응하고 이날밤늦게 小委에 참석했던 3명의 民韓黨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원안에 일부 수정을 가한 수정안에 합의를 해주었던것.

한편 이법안을두고 民韓黨內에서林총무와建設委員들간에 혼선을빚은것은 국회주변에서는『林총무가 2重플레이를하는건지건설위원들이 소신이없는건지 도대체알다가도모를일』이라고 갸우뚱。【盧鍾煥기자】

◇도시재개발법안등으로 막바지 진통을 하고있는 가운데 국회본회의는 14일戰警隊 法案등을 表決로써 처리했다。

메아리

路上樂人

한해가 저물어가는 歲暮의 밤길에 거리의 樂士들이 부쩍 늘었다. 자선남비의 요령소리와 함께 이 풋나기 樂士들의 음악소리는 한해를 보내는 送年의 効果音이다. 路上의 음악이 이 철에만 있는것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12월의 추운 겨울밤이라야 더 몸에 스민다.

파리는 흔히 「버스컨」의 천국이라일컬어진다. 버스컨는 뜨내기樂士를 뜻하는 英語다. 파리에서는 어디거나 좀 큰 지하철驛에 들어서면 음악소리가 들린다. 驛의 긴 복도를 걸어가는동안 심심치않다. 연주도 대개는 수준이상이다.

전통적인 파리의 버스컨는 허즈레한 베레帽를 쓴 노인이 오린지 궤짝에 걸터앉아 아코디온을 켜는 것이었다. 지금도 레퓌블릭광장같은데서는 여름철이면 1850년대의몽마르트르를재생시키고 싶어하는 老樂士들을 이따금 보기는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대개가 20대들이다. 바이얼린외에 기타나 플룻이 많다. 가끔 포크뮤직도 섞이기는 하지만 대개 곡목들은 클래식이다. 바하와 비발디를 자주 듣게 된다. 어떤 때는 본격적인 4重奏團이 正裝을하고 연주할 때도 있다.

파리에서 가장 버스컨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옛중앙도매시장자리인 레·알에 새로 세워진 地下商街다. 세계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온 풍피리 전문가도 있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온 風笛의 奏者도 있다. 루마니아에서도 오고 유고에서도 온다. 아일랜드의 한 친구는 파리에서의 이생활이 6년째라고 했다.

주로 지하철驛에 징을치는 버스컨들을 하루 잘벌면 5백프랑(약6만원)까지 수입이 오른다. 같은驛이라도 음향효과가 좋은곳, 지하철 소음이 잘 들리지 않는곳이 좋은자리다. 이들은 간혹 지하철의차칸에도 탄다. 돈은「보틀러」가 모자를 돌리며 거둔다. 보틀러는 옛날 영국사람들이 병에다 돈을거두던 풍습에서 나온 말이다. 버스컨는 이렇게 파리名物의하나가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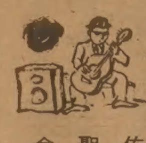
서울에서는 거리의 樂士들이 거의 盲人것이 다르다. 악기는 하모니카가 가장 많고 기타도 있다. 요즘은 녹음한반주에 마이크로 노래하는것이 늘었다. 이들은 주로 地下道가 무대다. 가장 인기있는 장소가 光化門지하도로 수입이 제일많다. 잘버는 날은 하루 1만5천원도 오른다. 대개 하오3시께부터 밤11시까지 일하지만 한푼도 못벌고 공치는 날도 더러 있다. 나이든 사람들보다는 젊은층들이 돈을 많이 놓고 간다. 거리의 樂士들은 城南달동네와 서울驛앞 陽洞의 盲人村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서울에 1백여명 되는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바이얼린을 켜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 흔치 않은 바이얼린의 盲人樂士하나가 최근에 악기를 도둑맞았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4년전에 30만원주고 산 아끼던 바이얼린을 어떤惡黨이 길에서 대신들어주마고 달라고 해서는 그냥 가지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요즘 한며칠 급강하한 기온 탓에서만이 아니라, 歲暮가 와락 추워온다. 겹겹이 핫옷을 껴입어도 惡寒이 드는듯한 느낌이다. 앞 못보는 장님의 것을 빼앗아 달아나는 세상은 참으로 캄캄한 세상이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세상이다.

이것은 규칙위반이다. 서로를 죽이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 포로는 죽이지 못한다. 장님의 감은 눈을 감기는것은 反則이다. 중대한 파울이다. 이런 게임의 룰이 통용되지않으면 사회는 阿修羅場이 된다. 어떤規範도 어떤德目도 어떤價値도 무의미해진다.

독지가가 새바이얼린을 기증해주어 그盲人樂士는지난 일요일 저녁다시 乙支路 지하도에 나타나 「유모레스크」를 켜고 있었지만, 白雪이 쌓이듯 포근하고 爐邊처럼 따스해야할 우리의 歲暮가 송두리째 도둑맞은것같은 기분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海外토픽

앤드루-스타크 또 週末휴가
★英데일리·미러紙보도

불과 두달전 카리브해에 함께 휴가를 지내 말썽을 일으켰던 앤드루 영국왕자(22)와 미국영화배우 쿠 스타크 (26)양이 최근 또다시 주말휴가를 함께 떠나 화제가 되고있다.

영국의 데일리·미러지에 따르면 앤드루왕자는 지난 10일 스타크양과 만나『비밀도피여행』을 떠났다는데 영국왕실은 이에대해아무논평도 하지않고있다고。【런던=AP】

매카트니는 내父親
★西獨여인 親子확인소송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보컬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매카트니(40)가 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西獨여인이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엉뚱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올해 20세인 베티나·후베르스양은 최근 폴매카트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주장하면서 2백81만달러의 부양금액을 지급받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그녀는 지난60년대초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매카트니가 비틀즈의함부르크공연기간중 자신의 모친인 에리카여인과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인해 자신이 태어나게 된것이라고 주장。

한편 영국신문들은 매카트니가 지난66년6월 이들 모녀에게 양육비및 위자료 명목으로 6만6천마르크 (당시 화폐가치로는 8천8백55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도하고 매카트니는현재 법원측으로부터 친자확인에 필요한 혈액및 신체조직일부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있다고 주장。

이에대해 매카트니의 대변인은『그같은 주장은 전적으로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런던=AP】

“글렌議員이 大統領된다”
★白堊館참모진 컴퓨터調査 말썽

백악관의 한 참모진이 상부의 허가없이 컴퓨터조사를 실시, 84년선거에서 民主黨의 존·글렌의원이 레이건대통령을 패배시킬것이란 결론을 내려 말썽을 빚고있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13일 문제의 조사가 레이건대통령의 허가없이독단적으로실시된것이라고밝혔다.

그는 이같은 백악관의컴퓨터조사가 결코 대통령이나 백악관고위보좌관의승인을받은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백악관의이러한 컴퓨터조사가 정부종사자들의 정치활동을 금한 법령에위배되는것은아니라고덧붙였다。【워싱턴=UPI】

◇人間砲彈 곡예 브라운·레인홀드씨가 12일 美캘리포니아州 애주서에서 벌어진 로지스·퍼레이드 경기의 리허설에서 대포로 쏘아 올려져『인간砲彈』의곡예를 하고 있는 모습。【애주서 (美캘리포니아州) 12日AP電=聯合】

◇낙하산타는 트뤼도아들 프랑스를 公式訪問한 캐나다의 트뤼도首相과함께 파리에 온 수상의 아들 주스탱 (JUSTIN)군이 어린이 展覽會를 견학, 파라슈트를 實演해 보이고 있다. 【키스톤=聯合】

캐나다 전역에 걸친

자동보온밥솥 SANYO 경품판매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bell ringers

크리스마스의 이상적인 선물은 산요밥솥으로

지금 세일기간중에 구입하십시요.
결혼등의 어떤 예식을 위해서도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 됩니다

- 기쁨을 주는 선물
- 실용적인 가격
- 튼튼하고 품질좋은 밥솥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November Draw Winners
* Mits Shimoda
* E. Horiuchi

레바논 다시 戰鬪치열

2개 政派·宗派 두곳서 충돌

트리폴리市·수프 山岳등 7일째 싸움… 百70명死亡

【트리폴리UPI AP=聯合】 레바논제2의 도시인북부港都 트리폴리(인구25만)와 동남부 수프산악지대에서 13일 두政派와 두宗派사이에 연7일째 또는 연이틀째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戰亂의 레바논은 또한차례 內戰위기에 휩싸였다.

수도 베이루트로부터 북쪽으로 약85㎞ 떨어진 트리폴리市에서는 이날 親시리아세력과 反시리아세력사이에 연7일째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어 7명이 죽고 10명이 부상했다.

또 베이루트-다마스커스간 국도가 관통하는 수프산악지대에서는 팔랑헤기독교민병대와 回敎민병대가 연이틀째 로킷트砲등을 동원하는 치열한 포격전을 전개, 최소한 25명의 사망자를 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두政派사이에 주도권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트리폴리에서는 13일현재까지 모두 39명이 죽고 최소한 1백10명이 부상했으며 수프산악지대에서는 약 1백30명의 사망자와 3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일련의 전투는 아민·제마엘 레바논대통령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이로써 전쟁복구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레바논은 시리아의 본격적인 개입 가능성과 함께 각파벌간 내전재연의 위기에 휘말렸다.

◇波, 계엄령정지 선언 폴란드국가평의회의장 헨리크·야블론스키가 13일 의회에서 계엄령정지에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르샤바13일AP 電送=聯合】

人工心臟 이식받은 클라크氏 용태回復

【솔트레이크시티UPI=聯合】 지난2일 사상 처음으로 永久人工심장이식수술을받은 바니·클라크씨는 수술후 11일째인 12일 부인과함께 풋볼경기를 관전했으며 용태가 서서히 회복되고있다고 유타大 보건학담당부총장 체이스·피터슨박사가 13일밝혔다.

피터슨박사는 클라크씨가 풋볼경기를 관전하면서 부인과 대화를나누었으며 그의인공심장은 『훌륭하게』 작동하고있다고말했다.

피터슨박사는 그러나 클라크씨가 『注意·주의해제』상태를 반복하는등 여전히어려운처지에 놓여있다고말했다.

『의사들은 클라크씨의 용태 호전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피터슨박사는 이어 클라크씨가 때때로 심한 졸음에 빠져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라크씨가 이식수술을 받은 폴리우레탄 인공심장 자비크7과 여타 주요 신체기관 모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라크씨가 호흡반응을 자극·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끔씩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波、31일 戒嚴令정지

政府대변인 聖誕前에 모든政治犯 석방

【바르샤바AP UPI=聯合】 폴란드 군사정권은 오는 25일 이전에 거의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31일을 기해 계엄령을 정지시킬 것이라고 정부대변인 예르지·우르반이 13일 밝혔다.

우르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에▲계엄령의 정지▲비상사태발시 계엄령의 부활▲현재 시행되고있는 제한조처의 완화등에관한 3개법안이 제출돼있으며 의회는 오는18일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법안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경우 우선2백여명의 前자유노조행동대원들을 구금상태로 묶어두고있는 억류제도가 폐지돼 국가전복기도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수호위원회(KOR) 소속반체제인사들을 제외한 모든억류자들이 크리스마스이전에 석방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엄령전면해제시까지 특별법의 성격을띠게될 이법안들에는 사회불안을 선동하거나 반정부문서를 소지, 배포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처벌을 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당국이 노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계속, 공장 및 광산노동자들이 경영자의 동의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불화상태』를 야기하거나 항의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은 아무런 통고없이 해고, 또는 퇴학을 당하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폴란드국가평의회의장 헨리크·야블론스키는 이날 의회에서 계엄령이 31일 정지되기는 할것이나 국가안보와 사회주의경제를 보호하기위한 잠정제한조처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教皇 암살관련된 터키人 伊에인도

【앙카라ANSA=聯合】 지난해의 로마교황 바오로 2세 암살기도사건에 관련된 혐의와 무기밀 매혐의로 이탈리아와 터키당국으로부터 각각 수배를 받아온 불가리아 당국에 억류된 터키인 베키르·셀렌크가 사건공로혐의로서 지난달 25일 로마에서 체포된 불가리아의 한 고급정보요원과의 교환에 따라 곧 이탈리아 당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터키의 후리예트紙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피아 특파원 기사에서 불가리아 당국은 이에 따라 셀렌크가 인도된후 너무많은 정보를 폭로하지못하도록 하기위해 그의 부인을 소피아의 비투시아 호텔에 억류해 놓고있다고 밝혔다.

蘇、新미사일개발 潛水艦발사 성공

【워싱턴AP=聯合】 소련은 최근 4基의 장거리미사일을 개별목표지역을 향해 발사함으로써 최신예잠수함발사전략핵미사일발사실험을 성공리에 수행했다고 美國의 정보소식통들이 13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SSNX20미사일 2基가 소련서북부의 白海북단에서 캄차카 반도를 향해 한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됐으며 다른 2基의 미사일은 중부태평양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들은 사정거리 8천50㎞에 이르는 이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이 실시된것은 지난 11일이었다고 밝히면서 실험결과는 성공적인수준이었다고 전했다.

SSNX20미사일은 최대장착탄두수보다 적은 4개의 탄두를 운반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캄차카 반도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의 탄두착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천명英女性 미사일配置반대 데모 수천명의 英國여성들이 12일 그린햄·코먼에있는 美軍기지 철책주위 14㎞를 팔짱을낀채 둘러싸고 크루즈미사일배치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고있다. 【그린햄·코먼(英) 13日UPI電送=聯合】

人事異動

外換銀行 ▲積善洞支店長兼獨立門支店 金取扱所長 次長兼 ▲新村支店 次長 北加佐洞簡易預金取扱所長 金炳浩 (15日字)

中共、國營기업 整備

2年內에 赤字·非효율업체 대상

【北京AP·聯合=聯合】 중공국무원수상 趙紫陽은 향후2년내에 적자를보거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체들을 통폐합하기위한 계획이 마련될것이라고 13일 밝혔다.

趙紫陽은 지난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의 승인을거쳐 이날공표된 中共의 81~85년 경제계획에 관한 보고서 全文을통해 금년도에 전체기업체 가운데 30%가적자일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결손폭이 큰 기업체는 운영개선이 되지않을 경우, 폐쇄될것이라고 말했다.

趙는 적자기업들의 결손총액은 40억元(20억달러)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과다한 천연자원을 소비하면서 저질의 제품을 생산하거나▲구매력이없는 제품을 생산하고▲에너지·운송·시장면에서 여타선진기업체와 경쟁하는 후진기업체등 3가지형태의 비효율적 기업체들을 조속히 폐쇄할것을 촉구했다.

中共·印정상화회담 내년1월에 北京서

【北京AP=聯合】 제3차 중공·인도관계정상화회담이 내년1월중순 北京에서열릴 예정이라고 중공외교소식통들이 13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인도대표단이 약1주일동안 北京에 머무르면서 중공측과 국경문제·관계정상화·상호관계확대문제등을 논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중공과 인도양국은 앞서 北京과 뉴델리에서 국경문제 해결에 관한 두차례의 회담을 열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못했다.

얼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黃光漢씨

陸士출신…外交力量기대 말보다도 行動을 앞세워

◇黃光漢총영사。

陸士(17期)출신의 외교초년생이지만 45세라는 젊음을 바탕으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성실한 외교관이란 평을듣고있다. 駐사우디 아라비아대사관 武官을 지냈으며 80년 11월 陸軍준장으로 예편된후 외무부에 들어와 81년 1월부터 지금까지 駐가나 대사로 일해왔다.

작년말 가나에 쿠데타가 일어났을때 현지교민과 우리 선원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등 기민성을 보이기도 했다.

우람한 체구에 걸맞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아랫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陸士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했으며 유도가 4단. 예비역준장이라서가 아니라 호탕한 성격때문에 부하직원들로부터 『黃將軍』이란 애칭으로 통하는 黃총영사의 취미는 여행. 부인 徐眞玉씨와의사이에 1남2녀를 두었다.

86년 金7개 다짐하지만

◇뜻밖의 金횡재 뉴델리아시안게임서 한국 여자테니스선수들이 단체전우승 금메달을 내 보이며 기뻐하고있다。

테니스

"선수層·시설·攻擊型 개발부터"

潛在力은 ⑥ 「金메달코치」가診斷하는 金메달리스트

◇崔富吉남자코치　◇趙大濟여자코치

테니스가 한국의 메달박스로 등장했다. 테니스 역사나 선수층에 있어 우위에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등 강호들을 제치고 한국이뉴델리아시안게임서 금4, 은3개를 따낸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대수확이었다.

이제 각국의 화살은 한국에 돌리게 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테니스가 아시아의 정상이라고 말하기엔 불안하다. 주요종목인 남녀단식과 남자단체전을 놓쳐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뉴델리영광의 산파역인 崔富吉남자코치, 趙大濟여자코치는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는 전종목석권, 금메달 7개를 모두 따겠다고 다짐하고있지만 우선 선수층확대, 과감한 시설투자, 공격형선수발굴등여러가지 숙제가 먼저해결돼야 할것이다.

崔·趙코치는 4년후의 서울아시안게임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프로테니스가 성행, 한국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崔=여자단식서 金壽玉을 꺾고 우승한 여고생 이노우에도 프로로 전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식으로 우수선수들이 프로로 빠져나가면 한국에게는 유리하지만 프로들에따라 테니스의 전체적인 잠재력이 증대되고 프로선수들과의 잦은 게임으로 기술이 향상, 결국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것입니다.

▲趙=아직 수준은 대단치 않아요. 일본 프로에는 남자가 20명, 여자선수가15명쯤되는데 단식 준결승서 金壽玉에 진 야나기가 프로,아마추어 통틀어 랭킹 1위입니다.

—뉴델리대표팀이 86년 아시안게임까지도 뛸수있읍니까.

▲崔=남자팀의 경우 20~22세로 아직 어린데다 未完의 단계여서 4년후까지 더욱 성장할수 있읍니다. 여자팀은 개편이 불가피하지요.

▲趙=여자선수중 金壽玉은 미국프로로 전향할예정이고 노장인 金男淑(24)은 체력이 한계에 달했읍니다. 그러면 薛良敬과 申順浩만 남는데 여기에 趙惠玉(20·국민은) 朴点禮(20·〃) 韓恩淑(21·조흥은)등 몇명만 보강하면 4년후에는 이번보다 더 강한 팀을 구성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朴点禮는 1m72로 키가 크고 서비스가 강해 申順浩와묶으면 복식에서는 무적이 될수 있읍니다. 朴은 유일하게 서브·앤드·대시를 하는 유망한 공격형 선수입니다.

趙惠玉도 힘과 서비스가 좋아 하드코트에 강한 선수입니다.

이밖에 李靜明 金一順(안양서여중)등 주니어선수들도 88년에 대비, 집중적으로 키워볼만합니다.

—남자팀서 가장 기대할만한 선수는.

▲崔=金春浩가 가장 유망합니다. 국내서 1인자는 못되지만 단신(1m67)의 약점을 훈련과 정신력으로 보완하고 끈질긴 승부근성으로 국제대회에 나가면 가장 잘 싸우는게 金春浩입니다. 포핸드의 정확성을 조금 높이고 단신때문에 서비스가 불리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해야합니다.

全昶大 李우룡 宋東煜은 모두 부상의 여파로 제실력을 다하지 못했지만 86년대회까지는 충분히 현재의 대표선수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봅니다. 全昶大는 몸의 유연성이 부족, 부상이 잦은데 호주전지훈련중 서비스를 고쳤고 발리와 스매싱에도 능합니다. 李우룡에는 플레이의 대담성, 宋東煜에게는 순발력만 키워주면 훌륭한 재목이 될것입니다.

한국대표선수들은 지금 프로에가도 모두 1백위내에 들수있는 실력이라고 평가받고있어요.

—현 대표팀의 뒤를 이을 선수들이 충분합니까.

▲崔=남자는 비교적 선수층이 두터운 편이지요. 金泰洙 俞鎭先 李成建 金羽成등 대학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盧甲澤 鄭福元등 주니어들도 급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어 앞날이 밝아요.

—한국선수들이 가장 개발해야할 과제는.

準決서 金壽玉에 진 日選手 아마·프로通算1위

▲趙=전반적으로 강한 플랫(Flat)서비스가 없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점차 바운드가 크고 빠른 하드코트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제는 클레이코트때와 같이 베이스라인에서만 플레이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강한 서브와 발리를 갖춘 공격형 선수들을 키우는것이 급선무이지요.

▲崔=테니스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가 절실합니다. 일본 선수들만해도 세이코대회등 5개의 프로대회가있어 매번 2, 3명씩은 세계의 톱랭커들과 맞부닥칠 기회를 갖지요. 또 인도네시아도 세미·프로화돼 각국의 프로대회를 쫓아다니며 중공은 계속 20여명씩을 해외에 전지훈련 시키고 있읍니다. 프로가없는 우리로서는 계속 밖에나가 부딪치고 경험을 쌓는게 중요합니다. 【俞興根기자】

記者의 눈 「오보」有感

친구와의 저녁약속도 어긴채 KBS 제1TV의월요기획「오보」를 보기 위해 13일 모처럼 빨리 집에 들어갔다. 이례적으로 일찍 귀가한아빠를 반기는애들과함께 TV앞에앉았다.

국민학교 5학년짜리 막내딸이 한참 TV를 보다가『아빠, 오보가 무어야』하고 불쑥 묻는다. 『신문이나 방송에 잘못 보도된 것을 말해』하자 막내딸은 『신문 참 나쁘다, 순 엉터리인가 봐』하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가족들과함께 「오보」를 시청하면서 신문기자 아빠를 엉터리로 볼까봐 마음이 여간 조마조마 하지않았다. 나는 『언론이 고의로 오보를내는일은 절대로 없으며 한시라도 빨리 뜨거운소식을 독자·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다 간혹 본의아니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잠시나마 이프로그램에서 해명해주기를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0분이라는 긴시간이 흐르는동안 오보를 하고있는 언론의잘못만을 날카롭게 섭토했을뿐 뜻밖에 오보를내는 과정을 알수있도록 보여주진 않았다.

「오보」를 끝까지 보고난 뒤 나는 TV에서 해주지 않은말을 딸에게 들려줄수밖에 없었다. 『하느님이 아닌 사람은 살다보면 실수를 할때가 있지않니. 시험을 잘치려다 간혹 틀리는것도 그런 실수중의 하나이지. 아빠는 좋은 신문을 만들기위해 얼마나 애를쓰고 있는줄이나 아니. 저녁에 늦게 들어와 너희들을 섭섭하게 하는것도 그때문이야』

그때서야알았다는듯고개를 끄덕이는 막내딸을 바라보며 나는 가만히 가슴을 내리쓸었다.

기자들은 매일 엄청나게 많은 뉴스와 마주친다. 그중에서 독자들이 가장알고파하는 뜨거운 뉴스를 골라 취재하여 신문에 싣는다. 하루 12면에 실리는기사는 수백건이 넘는다. 오보나 誤字를 내지않기위해 인쇄에 들어가기전 보고또 보는 피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하여 태어나온 뜨거운 한장의 신문을 손에든 신문기자는 피곤도잊은채 나름대로 사명감을느낀다.

13일 KBS TV에서방영된「오보」프로그램중 언론중재위원회에서「오보」로 처리한 내용도 소개됐다. 언론기본법제정에 따라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81년3월31일부터 21개월동안 총93건을 접수받아 중재하였음이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는 23개의 신문사와 2개의 중앙TV를 비롯, 주간지 지방방송국까지 포함할 경우 50개 가까운 언론기관이 있다. 50개 가까운 언론기관들이 21개월동안 1사당 2건의「오보」를 냈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 매일 시간과 싸우며 신문·방송을 내고있는 실정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숫자라고만은 할수없다.

그러나 아무리 고의성이 없는 오보나 명예훼손일지라도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신문은 공신력을 떨어뜨리지 않기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오보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문의 공신력이 떨어져 선의의 좋은 기사·취재·보도가 위축당하는일이 있다면 이는 독자를위해서도 불행한일이 아닐까. 【姜大衡문화부장】

全南우승 統一驛傳 폐막

대통령기쟁탈 제12회 통일역전마라톤대회가 10일간에 걸쳐 9백33.8㎞코스(全州~釜山~서울)를 주파하고 13일 폐막, 全南은 50시간18분6초의 기록으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釜山의 林鍾九는 최우수선수로 뽑혔으며, 13일 펼쳐진 天安~서울간 제10구간(96.7㎞)에서는 全北이 5시간25분25초로 1위를차지했다.

▲최종기록=①전남50시간18분6초②전북50시간26분46초③경북51시간1분6초④부산51시간2분29초⑤경기51시간18분15초⑥대구51시간21분18초⑦충북51시간29분42초⑧서울51시간27분38초⑨인천52시간1분1초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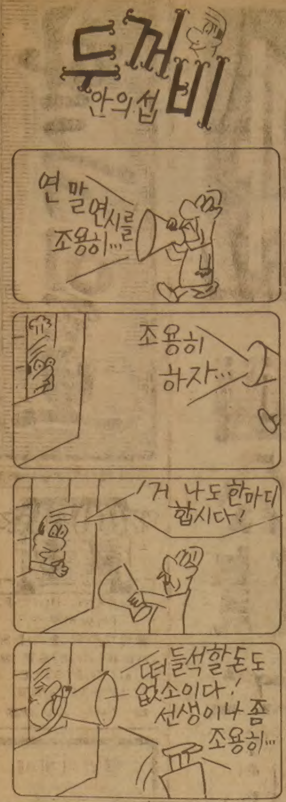
버가모교회 창립예배 안내
일 시 : 1982년12월19일(일)
오전 11시
장 소 : 2531 Lakeshore Blvd. W.
#202 Toronto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 CHINA HOUSE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TOEFL과 미시간시험을 대비한 특별교실.
□기초반·중급반·상급반
□83년도 1월·3월·5월·7월·9월 그리고 11월에 수업시작.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외국학생의 비자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人道행인 重傷…운전사 處罰못해

서울地檢 "特例法例外조항 해당안된다" 公訴포기

"국민感情에 위배 法보완해야" 法曹界주장

인도에 뛰어들어 행인3명에게 중상을입힌 트럭운전사가 검찰에의해 「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져 처벌을 받지 않게됐다.

피해자의 처벌주장과 국민의 법감정에 의하면 기소가 당연한 이사고가 공소권이 없게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인도돌진사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때문에 빚어진 것.

서울지검 朴光洙검사는 14일 유림상운(서울東大門區面牧2洞134의29) 소속서울8아2674호 8톤트럭 운전사 黃福植씨(30)에대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면책예외조항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운전사 黃씨는 지난달2일 낮12시50분께 서울鍾路區平倉洞66 귀빈예식장 앞길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피하기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바람에 차가 인도로 뛰어들어 예식장에서 나오던 朴동규씨(64·양곡가공협회龍山지국장·서울龍山區青坡洞1街58의45)에게 우측다리가 절단되는등 전치12주,유정희씨(54·충남天安市大興洞·중앙약국약사)에게 전치2주,李영주씨(55·서울鍾路區體府洞190·아림약국약사)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었다.

당시 이사고를 수사한 서울西大門경찰서는 운전사 黃씨에게 특례법을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서울지검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판단, 「공소권없음」이란 결정을 내린것이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망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책임보험및 공제조합포함)에 가입돼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되면 운전자가 ▲안전표지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위반▲추월금지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무면허운전▲음주및 약물중독 운전등의8개중 과실행위에 해당되지않는한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차량전복이나 인도돌진사고 등의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에만가입했고 사망자가 없으면 운전자를 처벌할법적근거가없다는 점을지적, 『국민의법감정과 맞지않는 현행특례법을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벌여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검은 지난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에서 혼선을 빚자 통일된처리지침을 만들어 전국검찰및 경찰에 지시했으나 우려되던 차량전복과 인도돌진사고등에 대한 처리는 법개정으로밖에 해결할수 없어 법개정까지는 각지검의 해석에 의하도록 했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의 경우 검사들간에 차량이 인도에뛰어들었을때는 차도와 인도의 3분선을 안전표지로보아 특례법상의 면책예외조항 1호의 안전표지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과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란 『교통의 안전에필요한 주의·규칙·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과 노면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선』이란 점을 들어 인도와차도의 단순한 3분선을 안전표지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법감정이 허락하지는 않아도 처벌할근거는없다는 주장이엇갈려왔는데 막상 사고가나자 결국 처벌할수없다는 결정을내린것이다.

모든醫療人 재교육

내년부터 年10시간… 피하면 資格정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및 간호원 조산원등 모든의료인에대한 보수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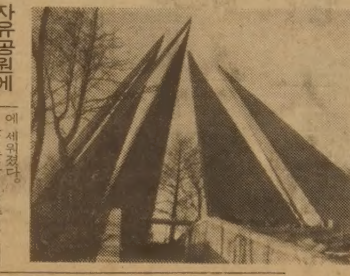
보사부는 14일 의료법시행규칙을개정, 내년부터 모든 의료인은 연간 10시간이상의 재교육을 받도록하고 3년단위로 30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지않을경우 3개월간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도록했다.

의료인보수교육은 평생교육의하나로 지난해12월 개정된 의료법에 이사항이 명시됐으며 이번에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내년부터 법에 의한 의무적보수교육으로 실시케된것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韓·美수교 百周기념탑 준공

仁川 자유공원에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탑<사진>이 仁川자유공원에 세워졌다.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4일 상오10시 李範錫외무장관, 金殷煥국회부의장, 金澔植한미수교1백주년기념사업위원장, 워커주한미대사등 각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1882년 濟物浦에서조인된 韓·美수호통상조약의역사적의의를기렸다.

식품 代理店미끼 4천여만원 챙겨

2명拘束8명 수배

【大邱】대구西部경찰서는 14일 식품대리점을 미끼로대구및 경남북 일원을 돌며 영세상인 50여명으로부터 계약금등으로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부흥식품 대구 경북총판 대리점 과장대리 박상도씨(30·대구壽城區上洞220)와 영업사원 김정삼씨(35·서울冠岳區奉天洞1513)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총판사장김임진씨(29·대구市西區飛山洞1228)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聰】

새싹회 장한어머니

올해李景先씨 선정

새싹회는 14일 올해 「장한어머니」로 崔允熙·允喜양자매의 어머니 李景先씨(41)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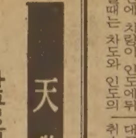
李씨는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인어자매」로 이름을 떨친 崔允熙양자매가 오늘이 있기까지 10여년동안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해 한국수영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공으로 22번째 장한어머니로 뽑혔다.

시상식은 22일하오3시 서울YMCA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

天職

한국음악방송 DJ조장 李銀姬양

촉감만으로도 申請曲 디스크찾아



●우리사회는 유감스럽게도 「天職」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좀더 나은 보수와 대우를 약속하면 언제든지 정든 일자리를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고 아예 직업을 바꾸는사람도 적지않다. 특히 젊은세대가 더 그러하다는게 작금의 풍토다.

그런점에서 유선방송인 한국음악방송의 DJ조장 李銀姬양(25·사진)만큼 天職을 찾은 기쁨속에 사는 사람도 드물것 같다.

『디스크 자키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겠느냐』고 하겠지만 李양에겐 적어도 그런말이 통하지않는다. 말이 DJ이지 유선방송의 성격상 말을 잃은지 오래이니 그녀는 「벙어리 DJ」를 다시없는 天職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李양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남달리 좋아했다. 라디오를 귀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음악에 빠져지내다가 대학을 중퇴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않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음악에의 정열을 억누를수가 없었다. 보다더 음악속에 파묻혀살고 싶었다.

4년전 이회사의 간부를 졸라 일자리를 얻었다. 보수도없는 무료봉사였다. 그래도 하루19시간을 음악속에 살수있어 좋았고 점차 음악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헤드폰은 가장 친한 친구이전에 몸의 한부분처럼 느껴졌다.

李양은 8개채널을 통해 유선으로 수용가들에게 음악을 선사하다보니 약6만곡을 기억하는 음악박사가 됐다. 그것도 2만여곡은 서곡이나 반주만 듣고도 가수나 작곡자를 척척 알아 맞힌다. 국악·가곡·팝송·클래식등 가릴 것이없다. 1만여장이나 되는 디스크속에서 필요한 디스크를 조금도 머뭇거리지않고 찾아내는 걸 보면 꼭 신들린 사람같다. 4년정도 디스크만 만지다보니 대개는 자킷의 촉감으로 안다는 설명.

『어려움이 없는것도 아니예요. 헤드폰을 끼고 하루종일 스튜디오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신청곡을 받을때 금지곡을 틀려달라고 조를 때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밉지는 않아요』

天職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웁게 사는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을 李양은 가르쳐주었다. 【朴珍烈기자】

『傳統의 茶』를 살리자

「마시기운동」앞서 茶園육성부터

◇茶園支援시급 최근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고유의 차(茶) 마시기 운동이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이운동은 고유의 차를 재배하는 다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부터 시작돼야 할것같다。

잘 안팔리고 경작비 엄청나

無等山·寶城등 문닫을 위기

【光州=裵琪哲기자】우리 고유의 차(茶)를 재배하는 다원(茶園)들이 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다. 요즘 들어 국산차 마시기운동이 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막상 국산차를 대줄 다원들은 이 자금난, 판매난등에 쫓겨 다원이 문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것.

『中國、日本등 동양3국중 고유의 차를잃고 있는것이 한국뿐이다』고 지적하는 다원경영자들은 정부의 육성책도 절실 하지만 사회지도층인사들부터 우리의 차맛을 살리는데 참여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관심과 성의를 보여 달라고 호소 한다.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곳이 동양화의 거봉毅齋 許白鍊화백이 가꾸어왔던 光州無等山의 춘설차(春雪茶)。 일명 작설차(雀舌茶)라고도 불리는 이차는 달고 쓰고 맵고 짜며 떫은 5가지 맛을 갖추고있는 양질의차로 알려져있는데 5년전 許화백이 작고한뒤 장남 許得씨(58·光州市所台洞 三愛학원 원장)가 맡아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許화백이 생존해있을때는 2만1천평 다원에서 차를생산했지만 지금은 생산능력의 10분의1만 가동시킨다. 작황이 부진해진 이유를 許씨는 팔리지 않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춘설차를 1백50그램들이 한통에 7천원을 받고 있지만 光州의 관광호텔등 소비처가 극히 제한돼 있고 일반인 상대의 시판이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작비는 많이 들어 매년 1천만원가량의 적자를 보나 경작을 포기할 수도 없다. 차는 과수원이나 다른 농작물에 비해 손길이 많이 가야 하고 복합비료를 줘야 하며 제초작업도 수시로 해야 하는등 경작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도 다원을 계속하는것은 차재배는 1년만 손을 보지 않으면 밭이 망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를 수확하는것은 1년중 5월초 6월초 7월말등 3번이지만 許씨가 수확하는것은 5월초 한번뿐. 그것도 재배량의 전량을 수확해봐야 판매할 길이 없어 1t가량만 거두어들이고 나머지는 버려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의 운영상태를 『기와집 불질러 숯장사하는 꼴』이라고 개탄하는 許씨는 선친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쳤던 다원이라서 그대로 보존하고싶기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許씨의 춘설차는 시중의 다른 국산차(1백20g들이 1통에 1만5천원)보다 훨씬 싼값이지만 고유의 차를 널리 보급하라는 毅齋의 뜻을 살리기위해 생산원가에 팔고있다는 주장.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이 없어 팔리지를 않고있어 차의 진짜맛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毅齋의 제자 친지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준다. 또 毅齋가 운영하던 육영사업체인 三愛학원의 학생들이 다도를 배울때 사용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다도를 가르치겠다고 요청하면 그냥 나누어주기도 한다.

毅齋는 생전에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자극성있는 음료를 좋아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茶山 丁若鏞의 가르침을따라 이차를 보급하기 위해 애썼다는게 주위사람들의 증언.

춘설차는 몇번 중흥의 기회가 있었으나 대중의차로등장하는데는 실패했다. 李承晩 대통령은 이차를 항상애용했었다는것이며 朴正熙 대통령도 큰관심을보여 許화백에게 50정보 규모를 경작하라고권유까지 했으나 전문경영의어려움등으로 그기회를 살리지 못한것 같다.

그사정은 당시 춘설차의 [illegible]으로 보조를 받고 활기를 띠기시작했던 寶城지역의 녹차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녹차도 판로가없어 밭을 묵히고 있는 실정이라는것.

許씨는 지난봄 구청으로부터 6백만원의 영농비융자를 제의받았으나 거절했다고말한다. 전국적인 고유차에 대한 인식과 마시기습관이 세워져야하고 조직적인 육성책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에서 일시 자금을 쭉어 봤자 적자를 가중시킨다는 뜻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춘설차 봄에 차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아날때 새의 혀끝처럼 뾰족한 잎새가 3가닥 돋아나 그모양을 보고 붙인 이름으로 맛도 맨처음에 나온 새순을 따서 말린것이 가장 뛰어나다.

주택福券 10장 모두 당첨

1등·幸運당첨 3천5백만원 받아

주택복권 10장을 산사람이 1장이 1등, 나머지 9장이행운상에 모두 당첨돼 한꺼번에 3천5백40만4백원의 복금을 타는 행운을 안았다.

지난12일 추첨한 제5백59회 주택복권 추첨에서 姜鉉俊씨(28·상업)가 갖고있던 2조 501840~9까지의 연식복권 10장중 끝숫자가 5번인한장이 1등에당첨됨으로써 나머지9장은 자동적으로 행운상을 차지, 연식이기 때문에 각각 복금의 2배를 받는횡재를안게됐다.

姜씨는 복권중 1등과 행운상의 한장이 6등 1백만원짜리에 또 당첨돼 4백원을 더 얹어받게됐는데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2천8백60만3천74원.

姜씨는 이복권을 지난7일 밤11시께 서울西大門區의 어느 버스정류장앞에서 샀는데 14일상오 신문광고를 통해자신의 행운을 알게됐다는것.

姜씨는 너무뜻밖이어서 당첨금을 받은뒤에야 횡재를실감했다고 싱글벙글했다.

육군대위로 제대한 姜씨는 부모형제와 함께 2백만원짜리전세방에서 어렵게 살고있는데 복권을산날은 里門洞의 약혼녀집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姜씨는 자신보다 잘사는 약혼녀집에가 『가난한 집에 시집와살려면 어려움이 많겠다』고 위로하고오던길이 었다며 하늘이 도운것같다고좋아했다.

姜씨는 평소에도 같은복권판매소에서 복권을 사왔는데 이날밤은 주인이 알아서집어 가라고해 번호가연결된 10장을 집어갔었다면서 추첨한12일은 5년전 미8군통역장교로 배치받던날과 맞아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것일뿐 갑작스런 현몽같은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10장이 모조리 당첨된것은 81년10월과 81년12월 2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2개銀行·농협등 울려

前科4人組 入金전표위조、5천만원詐取

【裡里】전북裡里경찰서는14일 서울·大邱·仁川등지의 은행과 농협에서 입금전표등을 위조, 5천2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는등 은행창구에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해온 黃斗煥씨(59·서울鍾路區무악동 연립주택45)李四龍씨(55·仁川市桃花洞13)崔隆業씨(59·서울東大門區中和洞110)方慶烈씨(39·서울冠岳區奉天洞山81)등 일당4명을 범죄단체조직및 사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자들인 이들은 지난1월23일상오 10시께 경기도 龍仁邑 龍仁단위농협에서 가명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한후 입금전표를위조、통장에 입금 처리케한뒤 3백50만원을 인출해낸것을 비롯, 지난8일까지 전국52개은행및 농협창구에서 52차례에 걸쳐 현금5천2백만원을 사취한 혐의이다.【[illegible]】

金鉉奬등 上告

釜山 美문화원放火

【大邱】속보=부산 美문화원 방화사건관련 피고인 16명중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金鉉奬(32)文富軾피고인(23)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은 金恩淑피고인(23)등 12명이 14일 하오 대법원에 상고했다.

"分讓안돼 賃貸한 아파트 附價稅물릴수 없다"

東農건설 勝訴판결

분양목적으로 지은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분양이되지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했을경우 세무서는 아파트 건설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재판장 金桂祥부장판사)는 14일 東農건설(서울東大門區祭基洞)이 서울盤浦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盤浦세무서가 원고회사의 아파트임대와 관련, 지난해 10월부과한 부가가치세 6천4백93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東農건설은 지난80년 충남 大田市東區三松洞에 빌라맨션 아파트60가구분을 분양목적으로 지었으나 경기침체등으로 분양이 부진하자 18가구분을 임대기간1년으로 임대했는데 盤浦세무서가 이임대수입에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전화번호변경안내

서울시내 다음지역의 가입전화는 신촌전화국에서 아현분국으로 수용변경됨과 동시 전화번호도 변경됩니다.

변경대상지역	변경일시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전지역 ○대현동 일부지역 ○창천동 일부지역	82. 12. 18 13:00

★전화번호 변경내역
대상지역의 322, 323, 324국은. 392국으로 분산 수용되고 325국은 393국으로 수용되며 일부는 가입자 번호도 변경됨。
★변경되는 전화번호는 개별통지함。
1982년12월15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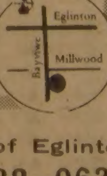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實名制「民正수정案」통과

國公債 千5백億 삭감

常委활동 끝내 오늘부터 本會議

국회는 13일로 각常委활동을 모두 끝내고 14일부터 本會議를 열어 각常委에서 회부된 50여개의 案件을 처리한뒤 오는 17일閉會한다.

국회는 13일 法司 內務 財務 經科 商工 保社 건설 등 리피特委등을 열고 각종法案과 同意案 請願등을 심사했다.

財務委는 이날 금융實名거래법안에 대한 民正、民韓黨의 修正案을 놓고 與野간에 贊反토론을 벌인끝에 表決에 붙여 民正黨修正案을 통과시키는한편 民韓黨수정안을 폐기시켰다.

이날 통과된 民正黨의 수정안은 내년7월1일부터 무기명·가명預·積金은 이자소득의 15%를, 85년1월1일부터 20%의 세율을 차등적용토록 하고있다.

재무위는또총3조원國公債중1천5백억원을삭감, 5천5백억원규모의 국민투자債券을 포함한 1조원규모의 國債발행동의안과 産金債、주택채권등 총10건 2조8천5백억원과 2억5천만달러의 각종 債券발행보증동의안을 처리했다.

재무위는 또 실명거래법안을 통과시킴에따라 租稅減免特例 대상에 이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民正黨이 제출한 租減法 개정안도 아울러 처리했다.

租減法은 지난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실명제법안이 그때까지 재무위를 통과하지 않았기때문에 租減法특례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었는데 民正黨은 租減法제3조1항의 租稅特例를 받을수있는대상(현재21개)에 금융실명 거래법안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에따라 非實名금융자산소득과 非實名금융자산소득에 대한 差等과세및 短資회사、상호신용금고회사 설립자본금에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조항이 효력을 발생케된다.

그러나 民韓黨은 실명거래법안에 근거한 차등과세가 내년7월1일부터 실시되므로 내년에 租減法을 개정하면되고 특히 短資회사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는 국세청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를들어 租減法 개정안의 처리에대하여 논란을벌였었다.

◇오랜진통끝에 實名制법안에대한 마지막결론이 내려진 13일하오의 국회財務委에서 姜慶植재무장관이 굳은표정으로 지켜보고있다.

金부총리·姜재무 解任案내기로

民韓、實名파동물어

民韓黨은 實名制파동에 따른 책임을 물어 金埈成부총리와 姜慶植재무장관에 대한 解任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林鍾基民韓黨총무는 13일 『實名制파동으로 빚어진 경제 혼란과 경제정책난맥상의 책임등을 물어 金부총리와 姜장관의 해임안을 내기로 이미 黨論이 마련돼있다』고 밝히고 『국회재무위에서 금융實名거래법안이 民正黨의 修正案대로 통과되는 즉시 해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林총무는 이번 해임안에는 民韓黨소속의원81명과 이에 同調하는 議政同友會소속의 원14명등 이날현재 모두 9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당선 안내기로

국민당은 實名制문제에 따른 관계각료의 解任案을제출치 않기로 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도시再開發法 철회를 통과되면 財閥만특혜"

建設委질의의

국회建設委는 13일하오 정부가 제출한 도시再開發법개정안에 대한 질의를벌였다.

이날 民韓黨의 金炯來의원은 『현 재개발정책은 재벌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등을 모두 免稅조치토록 되어있고 도로 하수도등 공공시설마저 정부의 재개발기금에서 부담토록 한데다 토지收用權까지 재개발업자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이 개정안은 정부가 마땅히 철회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울瑞麟제1지구 韓一합섬의경우 仿係회사인 韓國개발을 내세워 坪當시가 1천2백만원을 감정가 5백80만원으로 매입을 주장하면서 수용뉘협을 하고있다』고 밝히면서 『재벌그룹社屋이나 호화호텔 백화점등을 짓기위해 재벌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조항은 전면삭제하라』고 요구했다.

金의원은 또 『서울陽洞에 힐튼 호텔을 짓고 있는 大宇그룹이 坪當50만원을 제시했다가 주민과의 협의매수결과 1백20만원으로 매입했다』고 말하고 『코오롱 그룹이 武橋洞本社를 짓기위해 坪當78만원을 제의했다가 1백94만원으로 2·5배나 더주었고 乙支路入口에 건물을신축중인 斗山그룹경우 坪當4백80만원을 제의했다가 1천5백만원으로 3·1배나 더주었으며 太平路에 있는 三星그룹의 東邦生命본사의 경우 坪當 3백45만원을 제시했다가 1천7백50만원으로 5배나 더주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말하는 補償評價額은 원매자와 구매자의 자발적인 협의가격보다 3~5배나 싸게 책정되어 만약 이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영세地主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재벌에게 3~5배의 이익을 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재벌에게 수용권을 白紙委任할게 아니라 건설부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崔守桓 申元湜의원(民韓)등도 ▲작년3월31일 이法을 1차개정한후 1년만에 개정코자하는 이유 ▲토지소유자조합에까지 수용권을 주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우려가 있는게 아니냐 ▲재개발이후 원주민의 입주가능성 ▲도심지 재개발에 참여한 재벌들의 건축법위반 여부등을 따졌다.

이에대해 金宗鎬건설장관은 답변에서 『도시재개발法은 재개발지역주민이 신축건물의 분양을 희망할 경우 절대 수용못하게 제도화되어있어 私有재산보호에 역점을두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축질서를 위해 서울市는 4大門안에 고층건물을 건폐율45% 容積率 6백70%로 규제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에서 이를 일부완화하고있으나 건축법상건폐율70%、용적율 1천%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하고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본다』고 설명했다.

農·水協조합장등 間選制 계속異見

내년초반 農協단위조합장을 우선 總代에의해 間選하도록 시범운영키로 與野의 의견접근을 보았던 農水畜協法의 개정은 시행범위를 놓고의 견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못했다.

이날 農水産委는 李範俊위원장주재로 상오두차례與野간사회의를 열고 이문제를논의했으나 야당측에서 시범운영보다는 法의보완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제시, 이날하오 이문제를논의키위해 열릴예정이었던 총무회담도 流産되었다.

KGB협력 日人 곧公開

레프첸코 名單수록 책2권 發刊계획

【워싱턴OANA綜=합】소련비밀경찰(KGB)요원이었던 스타니슬라프·레프첸코는 앞으로 수개월이내에 2권의 책을 출간, 약2백명의 일본인 KGB협자들의 신원을밝히겠다고 11일 말했다.

지난79년10월 미국으로 망명한 前KGB소령 레프첸코는 美의사당에서 일본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일본인 첩자들의 명단을 밝힐수는없으나 앞으로 미중앙정보국(CIA)의 사전검열을 받아 2권의 책을 발간, 그 명단을공개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난 일본기자들의 질문공세는 레프첸코가 美하원정보위원회비공개청문회에서 매우 쓸모있는 첩자들이었다고 지적한『前각료』『의회의주요단체장』및『일본사회당중진수명』이 과연 누구냐는데 집중됐다.

離任 스웨덴大使에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칼·베른버그 駐韓스웨덴대사의 離任예방을 받고 修交勳章光化章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朴賛兢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公職者 재산登錄 대상자에 法院·檢察고위직 83명追加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1단계 公職者재산등록 대상자에 법원및 검찰의 高位職83명이 새로 추가될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의 한관계자는 13일『당초 1단계등록대상 고위공직자가운데 法院과 검찰의 일부次官級인사들을 제외시키기로했으나 법조측에서 차관급 봉급을받고있는 고위직83명을 등록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이들의 포함여부는 내주에 열릴 차관회의에서 최종결정될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들을 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총무처와 법원및 법무부간에 협의중인 추가등록대상은 법원에서 高法부장판사、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법원행정처차장 그리고 검찰측에서 大檢검사、地檢검사장、高檢차장검사등 83명이다.

蘇、對美核감축提議

【워싱턴UPI聯=합】소련은최근 만약 미국이 퍼싱Ⅱ및 순항 크루즈미사일 5백72基의 西獨배치계획을 철회할경우 그들이 보유한 중거리 核미사일을 절반이상 감축할것을 제의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미국정부소식통을 인용, 12일 보도했다.

타임즈지는 소련이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美·蘇핵무기감축협상에서 2주전 만약 미국이 퍼싱Ⅱ및 크루즈미사일의 서유럽배치계획을 포기한다면 총6백基의 그들소유 중거리핵미사일가운데 3백50基를 감축, 서유럽과 아시아를 겨냥하는 2백50基(西유럽1백50基, 아시아1백基)로 줄이겠다는 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레이건미국대통령이 자신의 이른바 「제로옵션」(零의선택)제의에서 전혀 후퇴할 의사가없는만큼 소련측의 이같은 『제의』는 미국측에있어 수락불가능한것이라고 지적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一新病院(은평구 갈현동390의8) 원장 吳用根씨외 임직원一同=1백1만4천원

▲在캐나다밴쿠버교민一同=캐나다貨1천80달러【전계남씨(전한인회장)=3백달러、김재현씨(사업)=50〃、최영찬씨=30〃、이응우씨(이버섯농장대표)=2백〃、최규섭씨(코리아하우스식당대표)=3백〃、이유섭씨(88서울올림픽후원회장)=1백〃、사단법인 밴쿠버한인회(회장 김세환)=1백〃】【한국일보 밴쿠버지사접수】

▲(株)三湖 쿠웨이트지점 임직원一同=쿠웨이트貨2백14디나르(한화53만원상당)

▲서울여상동창 녹양회(회장 이영숙) 일동=40만원

▲공영토건(株) 사우디리아드 현장임직원一同=39만3백39원

▲昌信洞 버강검 代表康鳳元씨=10만원

▲강동구 가락아파트88동 주민一同=5만8천5백원

<13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一新病院 吳用根원장外 1백1만원

在밴쿠버교민일동 加貨1천弗

三湖쿠웨이트지점2백디나르

서울여상동창 녹양회40만원

공영토건 리야드현장 3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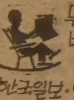
◇吳用根씨

한국일보 詩壇

초겨울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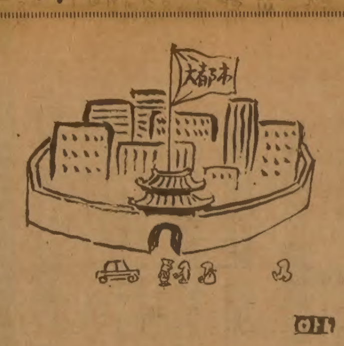
李福淑

비가 내리네
이 비가 거치면 추워지겠지
가랑잎마저 파들 파들 떠나 가 버리고
나무 홀로 우뚝 서서 겨울을 견디겠지
무남독녀 외동딸 시집 보낸 홀어머니 만큼이나
차디찬 외로움을 견디어야겠지
늦가을 비가 내리네
오는 비는 아무도 막지 못하네
이 비가 거치면 추워지겠지
사랑을 잃음을 도란 도란 저희들끼리 놀어 앉아 버리고
빙판진 뜨락에 우뚝 선 나무 혼자
기나긴 겨울을 견디어야겠지
살채기에 솜옷 흩는 따가운 추위에도 견디어야겠지
그렇게
모질게
견디어야만
봄이 오겠지.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社會漫評



사람과 차를 大學처럼 定員制로 하면?…

地平線

키신저는 소련의 새 지도자 유리·안드로포프가 영어소설을 읽고 서방포도주를 즐겨 마신다고해서 對西方和解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라고 평했다. 白堊館안보담당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서 美·蘇간의 문제를다룬 키신저는 새 지도자등장과는 별관계없이 소련은 그權力구조적 체질에따라 움직이게된다고 말했다. 미국언론들이 안드로포프의 對西方취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것을 키신저는 경고한것이다. ▼안드로포프야말로 소련權力구조의 한核心이 되고 있는 비밀경찰 KGB의 두목자리를 지난15년동안 맡아왔었다는점을 키신저는 想起시켰다. KGB는 러시아語로 「국가안전협의회」의 준말이다. 1917년 10월 소련혁명 직후 KGB는 창설됐다. 당시 이름은 체카였다. 이것이 60여년의 세월을 거치는동안 GPU、OGPU、MGB등의 여러가지 호칭을 거쳐 오늘날의 KGB로 확대되었다. 7층의 웅칭한 회색빛깔 KGB본부 건물은 모스크바 두제르진스키廣場 한모퉁이에 자리잡고있다. ▼『세계에 KGB요원들이 없는곳은 없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KGB는 세계적 활동을 편다. KGB의 현인원은 50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 그 예산은 연간 약 1백억달러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미국이 CIA(中央情報局) NSA(국가안보국)같은 정보기관에 소비하는예산 70억달러보다 더 큰 규모다. KGB는 미국의 CIA、FBI(연방수사국)、NSA같은 주요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총망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본부 기구로는제1局에서5局까지 있고 1局만이 대외정보업무를 감당한다. 제1局요원수는 약10만이라고 알려졌다. 그 해외활동은 외교공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西歐주재 소련외교관중 약4분의1이 KGB요원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에있는 1백36명의 소련외교관중 40명정도는 KGB요원으로 꼽힌다. 그밖에 뉴요크市와 샌프란시스코가 KGB의 미국내 집결지로되고있다. 西獨에는87명、이탈리아에는53명의KGB요원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9년 미국으로 망명한 前KGB소령 레프첸코는 약2백명의 일본인 KGB첩자들의 신원을 밝히겠다고 11일 말했다. 레프첸코는 이2백명중엔 前閣僚、의회의 주요단체장、일본사회당간부들이 포함되어있다고 밝혀 지금 일본을 충격적 스파이소동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41년 소련 거물스파이 조르게의 유명한 일본내암약이 아직 일본사람들의 머리속에 박혀있어 이번스파이진은 아무래도 비상한 파문을 일으킬것 같다.

즐거운 성탄과 희망의 새해가 되시길 빕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3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감사의 말씀

82년도 동우연말잔치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어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화환·경품및 찬조금과 기금을 희사하여 주신 여러분과 기관·단체에 우선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환 보내주신 분

▲한인회 신임회장단 장 순채, 이 기훈, 변 의섭
▲해밀톤 한인회장 이 영구
▲실업인협회장 차 선겸
▲외환은행장 최 승락
▲조흥은행장 이 원순
▲코리어저널사장 유 영린
▲호남향우회장 장 영대
▲LOTUS 꽃집대표 김 효숙
▲자문위원(본회) 이 기천

※경품 보내주신 분

▲신세계여행사 대표 김 창범
▲PAN ASIA(2점) 사장 이 창복
▲한국관 대표 나 옥녀
▲미도파 사장 장 추신
▲상공인협회 회장 조 병역
▲영숙보석상회 대표 민 영숙
▲한국일보사 사장 김 명규
▲민중신문사 사장 정 철기
▲코리어저널사 사장 유 영린
▲모나미 사장 이 기훈
▲본회 자문위원 고 광남
▲본회 자문위원 박 광철
▲본회 자문위원($200 찬조) 장 순채
▲본회 이사장(2점) 배 기덕
▲본회 회원 김 형철
▲본회 총무부장(3점) 김 진현
▲본회 재무부장 이 완식

약정금 입금 $1,050
현 금 $ 250
수 표 $2,020 합 계 $3,320.00

※기금 회사하신 분

▲이 형인 $500(약정불) ▲김 근철 $300(약정불) ▲한 영식 $250(약정불) ▲이 호석 $100(현금) ▲곽 정열 $50(현금) ▲김 용기 $50(현금) ▲김 천경 $30(현금) ▲유 홍선 $20(현금) ▲김 영상 $200 ▲이 영복 $150 ▲고 광남 $100 ▲김 충호 $100 ▲이 기천 $100 ▲이 회식 $100 ▲채 상회 $100 ▲구 진모 $50 ▲김 대현 $50 ▲김 진현 $50 ▲김 대경 $100 ▲박 재완 $100 ▲이 정호 $100 ▲정 호진 $100 ▲김 창세 $50 ▲김 세영 $50 ▲서 명식 $50 ▲윤 기열 $50 ▲이 홍춘 $50 ▲김 태권 $30 ▲이 병문 $30 ▲진 근섭 $30 ▲변 장엽 $50 ▲오 현구 $50 ▲이 상봉 $50 ▲미 상 $50 ▲김 충건 $30 ▲지 명환 $30 ▲임 수철 $20 계 37명

동우회 이사·임원 일동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들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財務委·建設委 질의 답변

"低物價·低金利정책 계속 金利 조정할 생각없다"

올해도 肥料값 올리나 / 국민「債券소화」불가피

질문 / 답변

國会錄音

財務委

▲金在[illegible]의원(民韓)질의=정부가 제출한 國公債발행 동의안의 사업계획이 너무 방만하고 막연하다. 국민투자기금의 조달과 운영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하며 작년 국회豫決委에서도 전체의견으로 이를 지적했다. 그런데 국민투자債券발행액은 작년의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국민투자기금의 적용대상을 막연히 明記말고 業種별로 구체화할 용의는, 원貨표시의 產金債상환기간을 中長期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外貨표시 產金債의 金利18%는 높다고보는데 이를 下向조정하라. 작년에 동의해준 4천억원의 원貨표시 產金債가 금년중 63%밖에 처리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5천억원이 소화되리라고 본는가. 電力債券발행에 앞서 금년중 전기료를 인상할것인지를 밝혀라. 작년에 비료計定의 韓銀借入원리금상환등의 안을 승인받은후 비료값을 올렸는데 금년에도 같은방법으로 年末에 비료값을 올릴 예정인가.

▲趙炳鳳의원(국민)=83년 예산에 포함된 國債3천4백67억원을 포함, 83년도 國公債발행계획이 원貨표시 [illegible] 민간부문의 자금압박으로 이른바 크라우딩아우트현상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또 國公債의 소화방식이 일반시장소화를 내세우면서도 첨가소화방식으로 강제소화형태를 취하고있는데 소화방식의 근본개선 계획은. 국민투자기금의 인수자금을 일반社債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용시킬 용의는. 大型아파트의 가격을 自律化하여 시장가격에 맡기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세금으로 전액 과감하게 흡수할 용의는. 80년부터 82년10월말까지 土地개발공사가 매입한토지는 2천9백60만坪인데 이중 개발공급실적은 1천4백만坪이다.

▲李洙鍾의원(議政)=83년기준으로 재정적자累增額은 4조6천3백9억원으로 81년에비해 무려 2백%가 늘어난것이다. 따라서 國債발행이란 빚을얻어 빚을 갚는 것이며, 이액수는 전체國債발행액의 50%에 달한다. 또 국민투자기금이 重化學工業에 지급한 총액과 상환액및 그 殘高와 면세서를 밝혀라. 중화학업체중 상환이 불가능한 업체의 명단과 대책을 밝혀라. 土開公이 買入한 토지중 未개발토지는 1천5백만坪에 달하는데 미개발이 많은 이유는. 기업의 非업무용부동산을 본의아니게 買入, 재벌의 뒷치다꺼리를 하지않았는가. 未개발토지중 그린벨트, 絕對農地, 公園용지가 1천만坪이라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채권상환에 문제가있다. 방만한 채권발행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韓電이 電力채권을 발행하면서 50호이상의 농어촌집단마을에 赤字를 이유로 電化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秋穀수매가를 7·3%인상하고도 비료값을 12%로 올리겠다는 얘기가있다. 사실이냐.

▲郭正出의원(民正)=국제금융시장의 金利는 국내金利보다 高金利로 국내금리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국내金利를 재조정할 용의가없다면 國公債발행金利를 현실에 맞도록하여 修正동의안을 낼 용의는. 비료計定적자를 韓銀차입에 계속 의존하지말고 근본대책을 세워야하지않겠는가. 營農자금회수를 내년1월까지로 연기한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姜慶植재무장관답변=지금까지 정책금융의 많은부분이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에 의존되어 자금의 硬直性이 우려되고있다.

따라서 국민투자기금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는한편 산업구조와 경제與件의 구조에맞추어 국민투자기금의 지원대상을 조정, 운용하고있다.

내년도 國公債발행 한도액은 3조원이지만 이것을 전부 발행하는것이 아니고 기간의 사정에따라 신축성있게 발행하도록 하겠다. 국민주택채권과 土地개발채권은 첨가소화가 불가피하나 나머지債券은 市中의 자금사정을 감안, 신축성있게 조정발행하겠다. 정책금융의 일시中止는 어렵지만 전체규모를 점차 축소하겠다.

國債金利가 12%이하 이기 때문에 外貨표시 產金債의 발행金利는 上限線을 정했을 뿐 실제로는 同意案에 표시한 18%보다 훨씬 낮게 발행할것이다.

우리나라의 國債규모는 GNP對比 17%로, 日本의 41%, 英國의 47·7%, 印度의 43%, 泰國의 23·4%에 비해 훨씬 낮다.

내년도물가는 안정이 전망되고 국제수지도 개선되고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金利를 조정할 생각이없으며 저물가 저금리를 계속 끌고 나갈생각이다.

지금의 국내金利는 물가상승률을 커버하고도 남는다.

▲姜仁熙농수산차관=비료計定의 赤字요인은 대부분 農家의 營農費輕減을 위해 2重가격제를 실시하는데있다. 앞으로 생산단가가 높고 合作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시설老朽회사를 정비,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비료의 인수와 판매가격의 차이를 적정선에서 年次的으로 해소, 韓銀借入규모를 줄이겠다.

▲崔東奎농자차관=우리나라의 未電化지역은 모두 5만6천6백호이다. 自家發電이되는 島嶼지역의 2만3천1백호를 제외하면 전기혜택을 받지못하는 호수는 3만3천4백호이다. 이들은 소득이 낮아 전기를 가설하더라도 元利金상환의 압박을 견딜수없기때문에 電化사업비를 줄이는것이 급선무이다.

▲金容翰科技處차관=기술개발투자회사의 자금지원은 최대한 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한다는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금년에는 지원자금중 45%가 중소기업에 제공되었다.

◇도시再개발법개정안을 다룬 13일국회建設委에서 [illegible]이 金宗鎬건설장관과 회의운영문제를 협의하고있다.

建設委

▲崔守桓의원(民韓)질의=지난81년 3월31일 도시再開發法을 개정했는데 1년만에 또다시 개정을 요구하는것은 건설행정의 일관성결여다.

서울西小門제3지구는 81~85년까지, 乙支路1街 지구는 80~83년까지 재개발 시행지구로 되어 西小門지구의 경우, 이곳 주민들이 坪當 1천8백만원을 요구한데 대해 감정가격을 내세운 보상금액은 평당 20만원이 제시됐고, 乙支路지구의 경우 주민들은 1천5백만원을, 보상금은 5백~7백만원선이 제시됐으나 결국 두지구는 소유자 주장대로이 됐다.

이 법이 개정되면 淸溪제2지구, 西小門제7지구, 乙支路2街, 茶洞, 瑞麟지구등은 주민요구액과 보상액간의 차이는 2~3배나되는데 토지收容權을 발동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앞서 乙支路, 西小門지구와는 보상에 있어 衡平의 원칙을 크게 해치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토지개발공사를 추가하는데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도시재개발과 무관한 정부제출 개정안은 도시의 균형적, 전통적 개발계획이 포함된 내용으로 고쳐 다시 제출해야 한다.

▲金炯來의원(民韓)=이른바 손댈필요가 없다는 개혁입법인 도시재개발법을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개혁입법의 개정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것인가. 토지수용권은 잘사용하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을 살리지만 이를 남용하면 역사와 사람을 동시에 해치는 칼과 같은 것이다. 재벌들에게 토지수용권이라는 칼을 주는것은 기업의 본질상 자기이윤추구를 위해서는 무자비한 弱肉強食현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현재의 재개발정책은 재벌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등이 전부免稅조치되고 도로 하수도등 공공시설은 정부의 재개발기금에서 부담토록되어 있는데 토지수용권까지 안기는 것은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재벌再개발에 불과하다.

꼭 토지수용이 부득이하다면 旣存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여 영세지주를 보호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재개발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까지 재개발실적을 보면 서울市의 경우 기준 容積率은 6백70%인데 이를 초과, 小公제1지구 플라자호텔경우 71%, 太平路 東邦生命 본사는 4백97%, 西大門 제1지구 南光토건본사는 71%, 光化門의 대한教保빌딩은 2백91%를 각각 위반했는데 이렇게 대기업을 두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오롱그룹의 武橋洞본사 건물의 경우 당초 구입계획의 가격이 감정평가액인 坪當78만원이었고 협의결과 수매한가격은 坪當 1백94만원으로 2·5배나 더주고 구입했고 斗山그룹이 乙支路입구에 신축한 건물은 坪當4백80만원을 제외했으나 협의후 매입한 가격은 坪當1천5백만원으로 3·1배 더주었으며 三星그룹의 東邦生命본사는 坪當3백45만원을 제외했다가 坪當1천7백50만원으로 5배나 더주고 매입했다.

이처럼 정부가 말하는 감정평가액은 협의과정보다 3~4배, 심지어 5배나 싸게 책정되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에게 3~5배의 이익을 주게되고 零細지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된다.

지금까지 서민의 이름을 팔아 재벌의 非업무용 토지나 사들인 토지개발공사의 재개발계획참여는 반대한다.

재개발지구 철거민에 대해 賃貸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한다고 했으나 임대주택건설 실적을 보면 금년도 건설목표의 29%에 불과한 2천9백17세대에 불과했으며 더우기 8백세대 건설을 목표로했던 서울市 경우는 단한채도 짓지않았다.

▲申元湜의원(民韓)=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유치에 따른 首都圈 정비계획법안, 국토이용관리법안, 하수도법안, 도시재개발 법안등 대도시개발만을 편중하는 법안만이 續出되고 있는데 황폐한 농어촌이나 농어민의 환경개선,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안이 개정되는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도시재개발사업은 사업지구주민들의 再居住원칙하에 이뤄져야하며 사업계획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재개발이 된후 분양지의 위치지정때는 최우선적으로 주민의사를 존중해서 현지주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과거 도심지재개발에 참여한 재벌들은 건축법위반, 公有地점유등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들 재벌들의 횡포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메아리

더 큰 宿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어머니가 어느 나라 국민이건 상관이 없다. 어머니의 국적이 문제되는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거나, 無국적일때 뿐이다.

예를들어, 한국여성과 미국남성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했거나, 아버지가 認知했다면, 그아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격이 없다. 한국남성과 미국여성사이에 태어난 아기라면, 그반대가된다. 어느경우건 어머니의 국적은 문제되지않는다.

이것이 우리 國籍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의 규정이다.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줄 안다.

국적에관한 法制는 크게 出生地主의(英美法系)와 血統주의(大陸法系)로 나뉜다. 이가운데 血統주의는 다시 父系주의와 父母兩系주의로 대별된다.

이 분류대로 하면 우리 國籍法은 父系血統주의에 든다.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父系社會的인 전통관념에는 들어맞을지 모르나, 사실은 적잖은 문제가 여기에 얽혀 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나라망신 감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近代法制가 그러하듯 우리國籍法의 연원은 일본을 거쳐 유럽대륙에 가 닿는다. 그 元祖중의 한 나라로서 父系주의 전통을 이어 오던 西獨에서도 그에 대한 違憲판결이 있은 뒤, 兩系주의로 법을 고쳤다. 문제된것은 父系주의의 性差別이다. 그결과로 지금 선진국중에서 父系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라 이른다.

우리 國籍法은 신통할만큼 일본 것을 닮아있다. 그중 제2조의 ①~③항은 일본법의 번역이라 볼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誤譯에 가까운 拙譯이다. 예컨대 일본법을 直譯하여『出生前에 死亡한 父가 死亡時에 日本國民이었던 때』라 한 것과, 이것을 본딴 우리법의『出生하기 前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死亡한 當時에 大韓民國의 國民이던 者』(同條③)를 비교해 보기바란다.

게다가 우리법은 현행 일본법에 없는 남녀차별의 덤을 남겨 놓고 있다. 제9조에『外國人의 妻는 夫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歸化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國籍法의 규정들은 많은 사람에게 관계되는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여기 길게 설명하는 까닭은, 그 것이 남녀차별 法制의 한 나타남인 것, 거기에 어느 정도 국제적인 함축이 있는 것, 더구나 이것이 우리나라가「女性差別철폐에 관한 國際協約」에 가입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는 것 등이다.

그제(12일)의「메아리」는 國際人權協約에의 가입을 시급히 풀어야할「큰 宿題」로 지적한바 있지만, 女性差別철폐協約에의 가입은 그보다 훨씬「더 큰 宿題」다.

女性差別철폐協約은 6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女性差別철폐에 관한 宣言」을 받아, 12년 작업끝에, 79년 유엔총회에서 찬성 1백30개국, 기권11개국의「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름그대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를 차별 말것과 그를 위한 제도정비·정책집행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 協約案은 이듬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세계여성대회에서 64개국이 서명하고, 20개국 議會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그해 12월에 발효했다. 우리는 이대회에 대표단을 보냈으나 서명은「사양」했다. 그사이 제법 활발했던 여성외교 활동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를 생각해서는 민망한 일이다. 일본은 그때 協約에 서명하고 國籍法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協約가입국은 지금 서명 89개국, 인준37개국(금년 2월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女性差別철폐協約의 서명과 인준을 위해서는 많은 立法작업이 있어야한다. 國籍法이야 쉬 고칠수도 있겠으나, 家族·相續제도등에 고쳐야할것이 한둘이 아니며, 敎育·雇傭관계에서도 법의 개정과 새로운 立法이 필요하다.

이 작업이 만만하다고는 할수가 없겠으나, 개정대상이 되는 법률은 다분히 違憲의 여지가 있으며, 사회정의·사회발전의 가장 큰 沮害요인이 되는 것들이므로, 아무래도 고쳐야할것들이다. 그렇다면, 기왕에 고칠것은 빨리 고쳐서, 女性發展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떳떳하게 女性差別철폐協約에 가입한만 못하다.

사회발전 沮害 법령을 정비하면서, 家族法을 개정안에서 빼버린 정부의 태도는 그래서 어리석게만 보인다.

人權協約과 마찬가지로, 女性差別철폐協約에의 가입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그 時限은「유엔女性發展10년」을 마무리 짓는 85년 나이로비의 제3차 세계여성대회다.

아직은 북괴가 이 協約에 서명않고 있으나, 저들이 서명을 서두를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나이로비에서 거만을 떠는 저들 여성대표와, 고개를 떨군 우리 대표의 대조만은, 결코 보고 싶지 않다.

金昌悅 <編輯委員>

인 사이드

"「敎皇·바웬사」暗殺기도"

西方망명 불가리아情報員 폭로

"自由勞組 없애려 KGB 背後조종"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암살기도 사건과 최근에 폭로된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의 암살모의 사건에 불가리아가 개입됐다는 보도는 이사건들이 폴란드의 자유노조 활동을 분쇄할 목적으로 소련이 꾸며낸 국제암살음모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3년전에 西方으로 망명한 불가리아의 정보원 스테판·스베르들레브대령은 지난11일 뮌헨에서 프랑스 신문과 회견을갖고 불가리아 정보원들이 브레즈네프 승인하에 당시 KGB총책이었던 안드로포프 지시로 교황암살기도를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어12일 간첩행위와 테러단체인 붉은여단관련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 노조간부 루이지·스크리치올로는 자신과 불가리아 정보원들이 지난해 1월 바웬사가 로마를 방문했을때 그를 암살할계획을 모의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이와함께 美國NBC·TV와 테러문제 전문기자인 클레어·스털링 美상원의원 다마토씨등은 최근의 정황증거를 내세우면서 불가리아정부와 소련KGB의 관련설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교황바오로2세가 자유노조를 분쇄하기위해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할 경우 귀국하겠다는 경고서한을 소련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교황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한 81년5월은 폴란드에서 자유노조활동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당시소련KGB의 책임자는 東歐圈문제에 책임을맡고있던 안드로포프였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들은 또 불가리아의정보원들이 자국이나 발칸지역안에서는 비교적 자유재량권을 인정받고있으나 국제활동의 경우 KGB의지시를 따르고 있다면서 소련이 이탈리아경찰의 수사를 혼란시키기위해 일부러 極右的인 터키의 아그자등을 고용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경찰은 교황암살기도사건과 관련해 이사건의 공범용의자로 터키인5명과 불가리아인 3명에대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놓고있다.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탈리아와 불가리아양국은 서로 상대방주재국대사를 소환, 불편한 관계로 치닫고있다. 양국관계가 불편해진것은 이탈리아경찰이 지난달 25일 불가리아 국영 발칸항공사 로마지사장 세르게이·안토노프를 교황암살기도사건 관련혐의자로 체포하면서부터였다. 이탈리아경찰은 불가리아정보원인 안토노프가 사건전날 도착한 암살범인 아그자에게 바티칸근처에 숙소를잡아 주었으며 사건당일에도 그가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밝혀 불가리아가 이사건과 관련돼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대해 불가리아는 인토노프가 결백한 항공사직원일 뿐이며 이탈리아경찰의 혐의내용은 근거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이탈리아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내보이고있다. 【金一煥기자】

解除 서두는 폴란드軍政

傷處뿐인「戒嚴1년」

勞組불법화 不信불러

새機構 구상에도 知識人들 냉담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된지 13일로 만1년이 지났다. 마치 두꺼운 담요로 덮어 씌운듯이 국민들을 숨막히게했던 계엄령은 이제 한쪽 끝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그러나 전례없는 1년여의 계엄통치기간은 국민들을 자유노조로 결속시켰던 저수준의 생활경제를 개선시키지 못한채 결과적으로 군사정부에 대한 불신감의 뿌리만 더 깊이 내리게 했다.

계엄령의 선포로 內戰또는 소련의 군사개입가능성등에 대한 우려는 일단 가셨지만 그동안 군사정부가 취한 자유노조 불법화조치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켰고 1천만노조원과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사태가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군사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를 탄생시킨 지난80년 그다니스크협정의 이상실현을 위한 폴란드국민들의 투쟁은 쉽사리 시들지않을것같다.

야루젤스키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은 지난해 12월13일상오6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우리의 행동은 역사가 심판할것』이라고 말했다.

야루젤스키는 당시 국가가 내전직전의 상태를 방불케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비밀경찰과 조모(폭동진압특수부대)를 동원, 反정부시위를 진압했다.

계엄선포이후 레흐·바웬사 자유노조위원장을 비롯 3천5백명이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며 아직도 3백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계엄하의 각급대학과 공장들은 침체된분위기에 휩

계엄당국은 폴란드를 東歐圈에서 끌어내리는 자본주의국가들의 사주를 받은 극단주의자·반동분자의 책략에 말려들어 국가가 혼란을 겪고있다고주장했다.

폴란드가 계엄조치를 취하자 군사당국은 공산통치36년사상 최대의 도전세력, 또는「조용한 혁명」의 주체로 일컬어지던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를 불법화했다.

지하로 잠적한 자유노조 지도자들은 지하유인물살포, 지하방송을 통해 저항을 계속하고있으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못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정부당국에게 불안요인으로 간주되고있다. 이것은 현당국이 계엄령을 전면해제하지못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원인도된다.

옛자유노조에대한 노동자들의 향수는 새로운 노조결성에대해 노동자들이 냉담한반응을 보이게했다. 자유노조가 해체된후 각급공장에서는 8백여개의 새로운 노조가 등록했으나 가입회원수는 지극히적다.

자유노조해체이후 폴란드는 다시 군사정부와 가톨릭교회만이 발언권을 갖는 이원적사회로 남게 되었으며 현재는 가톨릭교회가 국민감정을 조정하는 역할을하고있다.

군사정부도 이러한 현상을 감안, 지난7월 국가부흥애국운동(PRON)이라는 기구를 발족시켰으나 이 기구 역시 노동자와 지식층으로부터 냉담한 대접을 받고있다.

선전가상으로 최근 영화배우협회회원들이 국영TV출연을 거부하자 당국은 영화배우협회를 해산시켜 버렸다.

군사정부는 사태가 정상적으로 복귀하자마자 경제도 활발해질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현재 식량부족은 일상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엄격한 배급제로 길거리 가게앞의 장사진은 줄어들었으나 물가고는 생활수준을 저하시켰다. 또 작년에 비해 석탄생산은 증가했으나 기타주요산업생산은 감소되었다.

계엄선포 1년이 지난현재 폭동이나 파업광경, 군인들의 가두순찰, 거리의 방책등 계엄통치국가에서 흔히 볼수있는 광경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야루젤스키의 말대로「시련의 1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부와 의회만이 계엄해제와 그 이후의 사태에 대비, 갖가지 조치를 마련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朴來富기자】

◇폴란드군사지도자 보이체흐·야루젤스키가 12일밤 전국TV연설을 하고있다. 【바르샤바12일 AP UPI=연합】

謹賀新年

한국관

628 BLOOR ST. WEST,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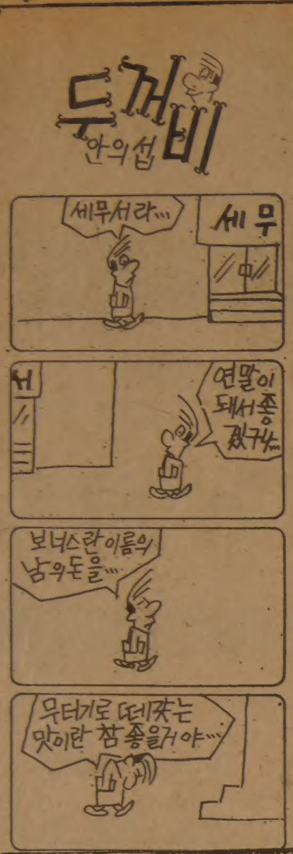
☎ 531-0277 대표 나 옥녀

개업5주년기념 봉사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비빔밥	$4.00
곰 탕	$3.25	육개장	$4.00
냉 면	$3.25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정부糧穀 8백40가마 "꿀꺽"

光州 창고業主등 4명拘束·2명手配

【光州】光州지검 수사과는 13일 정부양곡(벼)8백40가마를 팔아먹은 전북井州市蓮池洞 柳林창고 대표朴成基씨(56)·창고 관리인 李一雨씨(53)등 2명을 양곡관리법위반및 장물보관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들로부터 정부양곡을 사들인 양곡매매업자 具正根씨(52·裡里市仁和洞1街123)·朴來根씨(41·靈光郡靈光邑南川里)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이를 알선한 柳錫遠씨(47·靈光郡靈光邑武靈里)를 장물알선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南宮壽씨(35·井州市蓮池洞)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와 李씨는 지난 80년12월 정부양곡도정공장 등에서 부정유출된 80년산 정부수매벼 8백40가마를 자기소유창고에 숨겨두었다가 지난8월6일 양곡소매상을 경영하는 같은 마을 南宮씨등에게 가마당 2만4천원씩 모두 2천16만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이다.

또 具씨는 지난 8월10일 南宮씨 등으로부터 이양곡이 부정유출된 정부양곡임을 알고도 가마당 2만4천5백원씩주고 5백가마를사들여 보관해왔으며 朴씨도 이들로부터 2만4천7백원씩주고 3백가마를 매입한 혐의이다.【聯合】

회초리에 찔려 國校生이 失明

女敎師등 3명拘束

【晋州】속보=晋州경찰서는 13일 수업시간에 숙제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어린이를 대나무 회초리로 때리다 옆에 앉아있던 어린이의 눈을 찔러 실명케한 晋州모국민학교 교사 최삼자씨(35)를 중과실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친어린이의 아버지 강용식씨(43·晋州市上大洞)에게 폭력을 가한 윤대용씨(39·晋州市將臺洞)와 조갑현씨(36·晋州市玉峰北洞)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최교사의 남편 김준홍씨(41·咸陽郡모국민학교교감)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교사는 지난 10월13일 하오4시40분께 교실에서 숙제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강모군(10·3학년)을 길이 50cm의 대나무회초리로 때리다가 옆에앉아있던 강동삼군(10·3학년)의 오른쪽 눈을찔러 晋州 서울 부산등지의 병원에서 치료를받았으나 끝내 실명케 했다는것.

이후 최교사와 남편김씨는 아버지 강용식씨를 수차례만나 합의를 종용했으나 이루어지지않자 지난달 22일하오 8시께 최교사가 강씨를 시내將臺洞 모술집으로 불러내 술을 대접한뒤 이야기를하고 가자고 1백m떨어진 남강둑으로 유인, 갑자기 구토증세가 일어난다면서 강씨에게 배를 만져달라고 요청, 강씨가 배를 만지자 미리대기하고있던 윤씨와 조씨가 나타나 유부녀를 왜추행하느냐며 강씨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한뒤 추행시인서를 쓰게한혐의이다.【聯合】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美문화원 放火사건

金鉉奬·文富軾피고 2審서도 死刑선고

【大邱】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金鉉奬피고인(32)과 文富軾피고인(23)에게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고 崔基植피고인(39)에게도 징역3년에 자격정지2년이 선고됐다. 大邱고법제1형사부(재판장 盧承斗부장판사)는 13일 상오10시 고법1호법정에서 관련피고인16명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편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선고받은 관련피고인 16명전원이 대법원에상고를 하겠다고밝혔고 검찰측도 14일안으로 일부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하겠다고밝혔다.

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 자격정지.

▲金恩淑(23)=징역10년(9) ▲柳承烈(20)=징역10년(7) ▲林顯植(19)=징역7년(7) ▲崔忠彦(19)=단기5년장기7년(7) ▲李美玉(20)·崔貞純(20)·金志熙(21)=징역10년(7) ▲朴貞美(23)=징역3년집행유예4년(3) ▲金英愛(25)=징역3년 자격정지4년(3) 許珍洙(24)=징역2년 ▲金華石(22)=징역3년 집행유예4년(3) ▲文吉煥(36)=징역3년 집행유예4년(3) 李昌馥(43)=징역1년 집행유예2년(1)

주택融資金횡령·收賄까지

梁山勿禁面長 구속

【釜山】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융자해준 주택신축융자금 2백만원을 횡령하고 공사감독및 준공검사를 잘 봐준다며 공사업자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경남梁山郡勿禁面장 白正烈씨(53)를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건네준 업자 金善明씨(46)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白씨는 지난 81년12월28일 梁山郡勿禁里 30여가구에대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을하면서 주택신축융자금을면장과 건축주 공동명의로 새마을금고에 예탁시키도록되어있는점을 이용, 건축주인 송달영, 박말연씨의 예금구좌에서 동의없이 각1백만원씩 2백만원을 빼낸혐의이다.【聯合】

"開發우선" "自然보존"

「環境영향評價制」 2년째 攻防

관계부처끼리 異見만 거듭

환경破壞 계속 늘어나

각종 개발로인해 생기는 자연환경훼손과 파괴를 막기위해 마련된「환경영향평가제도」가 2년째 정착되지못하고있다.

시행초기부터 진통을 겪었던 이제도는 평가대상의 확대,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관계 부처끼리「개발이냐 보전이냐」하는 견해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것이다.

환경평가제가 재구실을 하려면 각종공사가 착공되기이전에 마무리지어져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게 돼야되며 따라서 평가시기가 언제인가하는점이 핵심인데 현행법령에는 그시기에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청은 최근 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 도시개발등 사업의 주무부처와 환경청간의 협의시기 규정을 신설하려 하고있는데 건설부등 개발부처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

정부간의 이견이 절충되지 않는한 법개정작업은 늦어질수밖에없고, 따라서 환경파괴등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수밖에없을것같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령은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장은 그계획안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 환경청장에게 미리 협의를요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환경청장은 이요청을 받은뒤 필요할경우 사업계획의 조정·보완등 조치를 요청할수있게했고 행정기관의장은 다시 그요청에 상응하는조치를 하도록돼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간에 논의의 초점이 되고있는 주요사항은 3가지로 공장용지조성등 산업기지개발사업의 경우「기본계획수립완료이전」에 평가협의를 하자는 내용인데 건설부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완료된후 개발사업이 결정되므로「실시계획승인이전」으로 늦춰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

또 도시개발사업중 구획정리·택지·공업용지조성·재개발사업및 하수도·공원·쓰레기처리장등 시설사업은「실시계획작성완료이전」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구획정리·택지조성등 2가지사업은 기존주거지역내에서 건전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한 것이며 재개발사업도 불량시가지를 개선하기위한 것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것.

그리고 공업용지조성사업만 대상으로 삼되「사업계획작성이전」으로 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환경청은 이에대해 택지조성·구획정리·재개발사업에도 환경평가를 실시하면 사업결과가 보다낫고, 美國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이를 적용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심각한 의견상충을 보이고있는 부문은 공원사업. 건설부는 자연공원중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자연보전지구등 3가지가 자연환경의 보전을위한 것이므로 집단시설지구만 환경평가를하되「사업추진이전」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이에대해 환경청은 전체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지않는한 의미가없고 계획이확정된후 실시하면 의견이 반영될수없다고판단,「공원계획결정이전」을 내세우고있다. 이밖에 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수 있는 사항에「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됐을때」를 신설하는 문제도 생태계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이미 지정돼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해토지이용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2중규제라는 이유로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평가 제도는 지난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78년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부처간 비협조등의 요인으로 늦어져 79년12월에야 법제상 명문화됐고 81년3월부터 도입돼 洛東江하구언공사등 21개의 중요대상사업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올해사업은 모두 18건으로 원자력발전9·10호기 용수댐건설등 7건은 협의가 완료되고 2건은 협의중이며 高德지구택지개발사업등 4건은 평가작업중이다.

한편 환경청은 올해까지를 초기도입단계로 삼아 정부사업중 대규모개발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실시한다음 83~86년엔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과 민간주도개발행위를 포함한 전사업중 일정규모 이상에도 확대함으로써 이제도를 정착,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任喆淳기자】

◇제철만난 겨울 등반 주말한파로 산악지방은 온통 하얀 눈속에 덮여 겨울등반이 제철을 만났다. 깨끗한 공기와 눈길을 밟을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나는 소리가 상쾌하기만 하다.

학생 개별방문·奬學金 사전지급등

우수新入生 과열誘致금지

文敎部, 각대학示達

문교부는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장학금지급과 졸업정원제의 변칙운영을 금지하고 겨울방학중 교수들로 하여금 연간 강의계획을 완수케 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한 83학년도 대학학사운용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가 지난10, 11일 이틀간 충남溫陽에서 열린교무처과장협의회를 통해 시달한 이 지침에 의하면 8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우수학생유치를 위해 고교교사나 학생을 개별방문한다든가 장학금 지급약속이나 장학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했다.

또 신입생모집업무에서 가능한한 지원서를 학교단위로 일괄접수하여 원서접수창구에서의 눈치작전이나 혼잡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신입생 전형계획을 수립할것을 당부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졸업정원제 시행과 관련, 지난1학기말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에 대한 탈락률이 2학년은31·6%, 1학년은 11·3%에 달하고있다고 밝히고 이제도의 운영에 아무문제가 없으므로 극소수의 중도수료자 구제를 위한 전과등 졸업정원제의 변칙운영은 절대불허한다고 밝혔다.

또 졸업정원제의 철저한운영을 위해 각대학에 이미 설치돼있는 학사개혁위원회를 활용, 학생들의 학습내용을 효율적으로 평가할수있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추위 다소 풀려

전통적 三寒四溫날씨…15일께 눈·비

12월들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삼한사온의 겨울날씨를 보이고있다.

주말부터 전국을 꽁꽁 얼어붙였던 추위는 일요일인12일을 고비로 다소 풀려 최저기온은 영하에 머물지만 14일부터는 2~3도 높은 예년기온을 되찾게된다.

중앙기상대는13일낮부터 북태평양 고기압권에들게돼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기온도 다소누그러져 추위다음에 느끼는 다소 풀린 날씨가 3~4일 계속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아침 서울지방은 영하7·9도, 大關嶺은 영하16도까지 떨어지는등 濟州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돌었으나 14일부터는 서울·中部가 영하6~9도, 남부지방은 영하2~4도가량된다.

그러나 15일하오에는 기압골이 통과, 흐리고 한차례 비가오겠고 고입선발고사일인 16일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될것같다. 한편, 11일과 12일 전남 靈光 光陽谷城등지와 濟州 울릉도 지방은 많은 눈이내려 13일상오까지 울릉도31·5cm, 전남지역은 평균10cm가 내렸고 濟州지방은 해발3백m이상지역에 4cm이상의 적설량을 보였다.

도난 澗月寺석조여래좌상 머리부분

蔚州국도변서 찾아

【蔚山】속보=지난11일 경남蔚州郡上北面登億里산139 澗月寺에서 도난당했던 통일신라시대의 석조여래좌상 보물370호의 머리부분이 13일상오蔚州郡農所面국도변서 발견됐다.

蔚山경찰서는 이날상오 9시께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불상의 머리부분을국도변에버리고간다는전화신고를 받고 蔚州郡農所面泉谷里慶州—蔚山국도변의 논둑에 버려져있던 여래좌상의 머리부분을 상오11시께 되찾았다.【聯合】

다.

가스中毒 2명숨져

【尙州】12일상오11시40분께 경북尙州郡尙州邑西城洞12 해운식당(주인 권재숙·44·여)작은방에서 잠자던 이식당주방장 이동진씨(58·부산시南區戡蠻洞99)와 주인권씨의 오빠 권재선씨(49·부산시影島區瀛仙洞4街1 34)등 2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져있는것을 주인 권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合】

유실수 시범지조성

야생동물 보호철저

山林廳, 전국에指示

산림청은 13일 내년부터 유실수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군별로 무궁화시범식수지 2개소이상을 조성하며 야생조수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산림관계관에게 지시했다.

孫宗鎬산림청장은 이날 水原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전국 산림관계자 회의를 소집, 이같이 지시하고 도·남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금년도 산림개발기금 대출잔액 6억여원도 올해안에모두 대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보호위주 정책에서 임업경영적 지원행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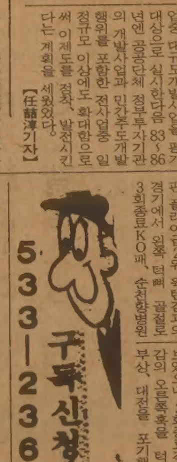
한편 全斗煥대통령은 산림보호의 기동성을 높이기위해 오토바이 2백6대와 임업연구 활성화기금 조성을위해 1억원의재원을지원해주었다.

턱뼈깨진 朴贊希

比윈텐감에 3회終了 KO敗

프로복싱 前WBC 플라이급챔피언 朴贊希(26)는 12일 문화체육관서벌어진 필리핀 플라이급2위 윈텐감과의 경기에서 왼쪽 턱뼈 골절로 3회종료KO패,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

재기3차전에 나선 朴은 이날1, 2라운드서 우세를 보였으나 3회종료직전 윈텐감의 오른쪽훅을 턱에 맞고 부상, 대전을 포기했다.



괴짜

서울市廳 민원실 金琪燕주사

특이한 도시락메뉴…3개國語 능숙

「사과 1개, 빵 한쪽, 우유한병」 서울시청 민원실 金琪燕주사(39·사진)가 매일 들고다니는 도시락 내용이다. 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왕년에 서양사람 흉내안내본사람있나』라며 시큰둥하지만 金씨는 73년부터 이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동안 오해도 많이 받았다. 처음 부임해오는 동료의 거의 대부분이 金씨의 특이하다면 특이한 식생활을 색안경을쓰고 쳐다보았다.

어찌보면 동료들의 눈길이 옳은지도 모른다. 金씨는 남다른 점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으니까. 우선 金씨는 늦게 배운 태권도실력이지만 단당 2단이다. 요즘도 매일 퇴근길에 도장에 들러 한바탕 몸을단련한후에야 집에 들어간다. 시청주사급 공무원중 영어 불어 독어등3개국어를 불편없이 읽고 쓰고 한다는사람도바로金씨라고알려져있다.

또 있다. 부인도 같은 서울시공무원이란 사실이다. 모두청에서 같은주사로 근무하고있는 부인이 지난번 승진시험에 응시, 남편보다먼저 사무관이 될뻔했다는 사실도 金씨가 다른 사람과 다른점의하나다.

金씨는 맡고있는 업무도 특이하기만 하다. 「원산지증명담당」. 처음 듣는사람은 이해가 잘안간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특혜관세제도담당」.

일반특혜관세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金씨는 수출업자들의 수출서류에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것이란 사실을 증명해준다.

시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같은 이 업무는 74년 상공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고, 金씨는 이때부터 이일을 담당해왔다. 수출업무에 대한 지식은 물론 외국어실력도 상당해야 한다는 업무특성이 그를 3개외국어를 해득할수 있는 「특이한주사」로 만든듯하다.

『처음엔 사과 1개, 빵 한쪽, 우유 한병을 먹으려면 사람들이 쇼를 한다고 할까봐 많은 신경이 쓰였읍니다. 그러나 하루에 5~6백명의 업자를 상대하는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보다 간편하고 마음편한 점심도 없읍니다』

·말하자면 교제점심을 퇴치하는 나름대로의 방어전략 개념인 모양이다. 그렇더라도 그도시락이 괴짜라는 평을 면키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않는 「괴짜」는 얼마든지 있어도 좋겠다.【鄭秉鎬기자】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쉘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닭알·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SHERATON HOTEL
123 Queen St. W.
전화: 366—1188(R) 928—3335 김현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 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황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이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한식·일식 요리사 구함.
경력 5년이상(요리사 자격증 요함)
전화 : 279-1039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좋은사람 구함. Full Time 주유소(Gain) 영주권자로써 1년이상 거주자. ◉877 Dundas St. W.(Bathurst St. 서쪽 300M)
내 방시간: 9am~3pm, 7pm~9pm

Part Time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전화 : 447-2116 (Mrs. 윤)

한식, 일식 여자요리사 구함. 3년 경력
658½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7-0432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Single needle, Double needle, Serging 머신.
◉좋은 보수와 좋은 이익.신청: Irving Posluns, Div. of Dylex.
647 Lakeshore Blvd. West. 3층.
◉월-금 8:00AM~5:00Pm

입주하셔서 할머니를 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275-0339 Mrs. 임
(오후 6시이후 전화 요망.)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861-1521, 222-3877

입주 또는 출퇴근하시면서 3살반된 애기 봐 주실분.
단, 담배피우지 않는분에 한함. ◉스카보로 북쪽.
전화: 496-1664 Mrs. 리

여자 가정교사 초빙
9, 11, 12학년 학생 가르쳐주실 여자분 선생님 원함.
전화: 694-1811, 691-8602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가족같이 애를 봐주시며 지낼분 환영함.
전화 : 669-6438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경험있는 풀타임 요리사 구함.
낮 또는 밤. 1315 Steeles Ave.(Dixie)
Mississauga, Ont. ◉전화: 457-1900

밤12시에서 아침7시까지 일할 경험있는
가게 캐쉬어 구함.(Mac's Milk Store)
전화: 421-1089, 250 Laird Dr.(Eglinton)

Part time 스토아 캐쉬어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88-1634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순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Tofel Michigan Test 준비
아동학습지도(다년간 지도경험) Honour B.A.in Economics
최미경 전화: 242-4745(오후 6시이후)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4 Mrs. 김

Typesetting, 식자 Business하실 분
소자본으로 여자 혼자할 수 있는 업종임.
문의처 : 533-2364 Mrs. 김

Winter 피아노. 새피아노 가격 $3,500 을 $2,300에 팔고자 함.
좋은 컨디션과 조율했음.
전화: 665-8233, 636-1430

Canada's Wonderland 근처의 Gift Shop 매매.
아스킹: $22,900+스탁. 전화: 746-4360 Joe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Large Variety Store for Sale
4,000sq.ft. Excellent Location in ETOBICOKE
Yearly Turnover : over $800,000 + Other Icomes
from Lottery Sales, Video Machines.
Beautiful, Clean, Atractive Store.
Must be seen to be appreciated. Private sale.
Please phone(after 10:30p.m.) 636-4338(George)
*꼭 오셔서 보시면 압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파트 빌딩앞. 주매상: $3,200. 좋은 가격에 양도하겠음
2350 Lakeshore Blvd. W. 직접 내방바람.

Take-Out Pizza 가게. Amherstburg. Ont.(윈저 20분거리)
주매상 $3,000·렌트 $350(모든것 포함) 월·일 문닫음. 아스킹 $40,000/$27,000 전화: 1-519-736-7515 Mr. 정(오후8시

성업중인 스넥-바 및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5일 영업(짧은시간)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3-4491(오후5시 이후)

▲Florida,Custom Built 2Bed Rm집.
중앙식 에어콘과 히팅.
대지 80'×125'. 1983년 2월에 입수.
아스킹: $27,500 US달라.
Clearwater에서 35분 북쪽 on U.S. 19. Beach에서 7분거리.
전화: 665-9115
▲휴양지 수페셜라이징한 몰개지 회사
Gross: 1 Million이상. 주인은 정년퇴직.
전화: 665-9115

수입 좋은 건물.(Bloor & Dovercourt)
디타치드. 방10개. 화장실3. 부엌2.
10%이자 아스킹: $79,900. ◉$10,000 다운페이.
전화: 298-7000 Silwin.
SILWIN REAL ESTATE LTD.

—"FOR LEASE"
—밀크스토아 장소. Brampton과 Oakville.
Oakdome Realty Ltd.—Realtor John W. Westerberg. 전화: 844-0363

빌딩과 비지네스 매매.
잘 꾸며진 작은 레스토랑과 2층에 2 Bed Room 아파트.
Queen St. East.(of Dufferin)
아스킹 : $193,000
전화 : 363-2440.
G.R.Paterson Real Estate Ltd.

▲FAST FOOD 비지네스.
Yonge St.에 있고, Richmond Hill 근방.
아스킹 $200,000
▲빌딩딸린 비지네스땅 $550,000
746-4360 Joe Tanzoe
Hollywood Real Estate Ltd.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무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Victoria Pk. 서브웨이에 있는 3Bed Rm. 콘도미니움 아파트렌트 렌트: 월 $695(다 포함)
전화: 698-6415, 624-3849

1 Bed Rm. 아파트 렌트. 교통 편리함.
싱글이나 부부에 적합.(Eglinton & Mt.Pleasant)
전화 : 488-1634

새로 꾸민 지하실 2 bdrm(거실, 부엌, 목욕탕)
세 놓습니다. Bathurst와 St.Clair 지역임. 월 $280
출입구 따로 있음. Mrs.채 Tel: 651-5388

Burlington에 있는 새쇼핑 쎈타안에 있는 Space 렌트합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나 음식점 또는 딴 비지네스에 적합.
전화 : 233-6276 or 1-639-9255

집 매 매

디타치드 2층집. 3Bd. Rm. 응접실. Dining Rm. Family Rm.
(Fire Place) Calif Kitchen. 지하실 잘 꾸며져 있음.
Outstanding House.(Steeles & Warden) 475-0894(6시 이후)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연락처 : (416)461-3363(H), 463-7423(B) 송영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톤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 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쎈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謹賀新年

즐거운 성탄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그간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NORTH YORK
AUTO BODY
송 대 헌 배상

OMEGA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 하세요

오메가 데이

다이야몬드 · 금목거리

세일기간 : 12월15일 ~1월29일

오전10시~오후9시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나가신 분을 위하여
일요일에 12시~6시까지 특별봉사

40% OFF

다이아몬드 귀금속 (공인감정서 첨부)
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등, 에메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등
● 혼례용 보석및 시계

⊙금목거리 10K, 14K, 18K
(이태리산 최신형)

오메가시계 남, 너 오메가 고급시계외
100여종 시계 다량준비하여 교민여러분께
염가로 특별 봉사합니다.

40% OFF

이번 밍크, 모피 특별쇼 기간후에도 계속 여러종류의
우량품 밍크, 모피 제품등을 준비하여 연중변함없이
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왕림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